남자축구 24년만에 金사냥

메트로 2015년 7월 13일 월요일 제3256호 www.metroseoul.co.kr

market index <10일>

코스피 2031.17 (+3.36)

코스닥 730.72 (+4.71)

금리(국고채 3년) 1.81 (+0.01)

환율(원·달러) 1130.10 (-3.10)

다시 일어서자

찬란한 고대문명의 발상지 그리스가 망해가고 있다. 이미 망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금고는 텅 비었는데 갚아야 할 빚은 산더미다. 그리스의 총부채는 3150억 유로(약 400조원)에 이른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2140억유로의 1.5배다. 2010년부터 유럽연합(EU)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2400억 유로를 빌렸지만 빚구렁텅이에서 벗어날 길은 요원하다. 좌파연합 시리자의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는 올해초 긴축 폐기를 기치로 집권했지만 6개월 만에 두손을 들었다. 그는 지난 10일(현지시간) 연금지급 축소와 세금인상, 국방비 감축 등을 통해 허리띠를 졸라맬테니 추가로 740억 유로(약 93조원)만 더 빌려달라고 채권단에 손을 내밀었다.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믿을 수 없다'고 1차 퇴짜를 놓았다. 한국시간으로 12일 자정부터 시작되는 유로존 긴급정상회담에서 3차 구제금융 여부는 결정된다. 결론이 어찌되든 그리스 국민에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쪼들리고 굴욕적인 일상이 기다리고 있다. 다 지도자 잘못 뽑은 대가다.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THE 맛있는 One샷

푸드트럭을 타고 펼치는

세상에서 가장 짜릿한! 요리배틀!

첫방송 | 7월 16일 | 목 | 밤 11시

News p/4

변호사 1천여명 집단행동

metro®

메트로 2015년 7월 13일 월요일 제3256호 www.metroseoul.co.kr

Economy p/6

범삼성가 홀로 승승장구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내달부터 공동주택관리시스템을 순차적으로 출시한다. 아파트 주민들이 집안에서 컴퓨터와 스마트폰, 스마트TV 등을 이용해 교육부터 주택수리까지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게 편의성을 제공하는 이 시스템은 창조경제의 첫 결실로 꼽힌다. /사진제공=SK브로드밴드

창조경제 아파트서 첫 개화

전북혁신센터 내달 공동주택관리시스템 오픈
국민 실생활 관련 첫 결실… 효성 지원도 한몫

앞으로 집안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고장 수리는 스마트기기 버튼 하나로 서비스 받을 전망이다. 지금도 건설사가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있지만 해당 단지에만 적용된다. 가스·전기·에너지 제어 기능이 대부분이다.

8월부터 순차적으로 출시돼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1호 성과물이 될 '공동주택 관리통합시스템'은 전국 모든 아파트에 적용이 가능하다.

모바일 아파트 하자보수관리업체인 와이드브릿지가 개발한 이 시스템은 국민의 70%가 거주하는 공동주택 관련 아이템이다.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효성이 지원한다.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조경제 지원을 위한 창업 경진대회를 개최하면서 주로 탄소산업 관련 아이디어를 채택했다. 하지만 '공동주택 관리통합시스템'이 공익성과 대중성, 사업성을 모두 갖췄다는 판단 아래 탄소산업은 아니지만 과감히 지원을 결정했다.

전북도와 창조경제 사업에 뛰어든 효성그룹 역시 정보통신과 건설 사업부문과의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 효성은 유·무선 전자결제사업과 모바일 마케팅, 멀티미디어 솔루션 등의 기술을 보유했다. 또 신규주택 공급은 물론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도 적극적이다.

와이드브릿지 '공동주택 관리통합시스템'의 기능은 크게 세 가지다. 그 중 단연 눈에 띄는 것은 '잔손보기'라는 신개념 주택수리 서비스다. 잔손보기란 아파트 전용부분 즉 세대 내 시설물에 대해 파손 또는 고장이 발생했을 때 영선기사(기계·설비 등 관리)에게 말을 해 수리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법에서는 영선기사가 공용부문에 대한 관리만 하도록 정하고 있다.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업체를 불러야 한다.

잔손보기 서비스는 "내가 사는 아파트를 가장 잘 아는 영선기사를 불러 잔손보기를 할 수 없을까?"라는 질문에서 개발됐다. 입주민이 '잔손보기' 앱을 실행해 등록돼 있는 영선기사를 부르는 방식이다. 영선기사는 퇴근 후 또는 비번인 날 호출에 응하면 된다.

요금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와이드브릿지 측은 최소한의 비용을 책정할 방침이다.

김홍립 와이드브릿지 대표는 "고객과 영선기사 모두 앱만 다운받으면 되기 때문에 기사가 속한 아파트뿐 아니라 인근 단지, 원룸·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등에서도 모두 활용이 가능하다"며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 노인 가구에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 온라인 교육시스템도 유용한 서비스다. 정부는 아파트 비리의 차단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을 의무화하는 주택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10여만 명의 입주자대표를 종전 지자체에서 해오던 교육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점에 착안해 만든 서비스가 바로 온라인 교육 시스템이다. 현재 98% 이상 개발이 완료, 이달 중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시연해 문제점을 보완한 후 8월 중 오픈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에서 급증하는 하자분쟁을 지원할 프로그램도 개발 중이다. 교육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약 98%의 개발률을 보인다.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위원회에 따르면 2009년 29건에 불과한 하자심사 청구 건수가 2013년 1953건으로 28배나 증가했다. 아파트 하자의 중요성을 감안해 정부는 주택법 개정을 통해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하자의 발견과 하자보수 청구를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관리사무소장이 비전문가일 뿐 아니라 지원 프로그램도 없어 체계적인 업무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에 용역업체에 청구하곤 하지만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소요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와이드브릿지가 개발한 하자관리시스템은 스마트앱을 기반으로 도면의 다운로드와 하자조사 양식을 지원한다. 또 미리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에 따라 하자의 발생위치, 공종, 유형 등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보고서가 출력돼 비전문가라도 쉽게 하자보수 산정을 할 수 있다.

김홍립 대표는 "지금 일정대로라면 연내 창조경제 첫 성과가 나올 전망"이라고 밝혔다.

/박선옥기자 pso9820@metroseoul.co.kr

불지르고 입다문 국민연금 엘리엇만 뒤에서 미소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지난 10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에 대해 찬성하기로 했다는 미확인 보도가 쏟아지고 있지만 누군가에 의한 '언론플레이' 성격이 강해 논란과 갈등은 더 커질 전망이다.

막상 국민연금 측은 사흘째 가타부타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 17일 삼성 주총 장에서 찬반 여부 등을 공개하겠다는 입장만 되뇌고 있다는 전언이다.

12일 한 증권사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불 질러 놓고 구경하는 황당한 모양새를 취하면서,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삼성 지배구조 하나 때문에 불필요하게 외국계 투자자를 자극하는 결과만 낳은 건 아닌 지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며 시장 분위기를 전했다.

일부 언론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한 주가 아쉬운 삼성으로서는 11.21%라는 막강한 우군을 추가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삼성계열사를 비롯해 이미 백기사를 자처한 KCC까지 합치면 삼성물산 지분 30.99%가 확실하게 삼성 편에 서게됐다.

그렇다고 문제가 종국적으로 삼성에 유리하게 풀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단정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엘리엇은 되레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을 수 있다. 어차피 펀드의 주된 관심사는 합병안 통과 여부 등이 아니고 돈을 버는 데 있다. 국민연금 건으로 삼성측에 그린메일(적대행위를 멈추는 대신 주식을 비싸게 사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보낼 명분만 하나 더 확보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엘리엇으로서는 합병 주총 이후 매입가 대비 평가액이 낮아지는 등 현실적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한국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제기할 확실한 꼬투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다.

종전까지는 엘리엇이 ISD를 제기하고 싶어도 명분이 애매했는데, 일부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엘리엇이 한국정부를 걸고 넘어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국민연금기금의 투자 관련 최고 의사결정 기구는 기금운용위원회다. 이 위원회의 장을 국무위원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외부 자문기구인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 찬반 결정권을 넘겼다면 결과와 관계없이 엘리엇이 국민연금과 관련해 ISD를 제기하기는 힘들다. 정부가 아닌 민간기구가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ISD를 제기할 수 없는 게 원칙이다.

국민연금의 '삼성 지지' 가 당장 17일 주총에서 삼성을 유리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삼성으로서는 합병안 통과를 위해선 우군을 추가로 더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국민연금의 '한국 경제 운운하는 정치적 행위'가 외국인은 물론 국내 기관 투자자들에게도 반감을 주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삼성이 주총에서 합병안을 통과시키려면 주주들의 주총 참석률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우호지분을 최소한 20%정도는 더 확보해야 한다. 합병안이 가결되려면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즉 66.67%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소액 개인투자자(24.43%)를 뺀 나머지 주주가 모두 주총에 참석한다고 가정하면 국민연금을 제외한 국내 기관투자자(11.05%)와 엘리엇을 뺀 외국인투자자(26.41%) 중 최소한 절반 이상이 삼성 편을 들어줘야 합병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생긴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애국주의적' 주장이 이들 프로 투자자 눈에는 유치한 후진국 논리로 비칠 수 있다. 결국ISS(기관투자자서비스)나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등이 제시한 반대논리를 극복할 수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종전보다 되레 더 높아졌다는 지적이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한줄 News

▲ 제9호 태풍 '찬홈'의 북상으로 12일 제주도를 비롯한 전국에 강한 바람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려 항공편과 뱃길이 끊기고 가로수와 신호등이 넘어지는 등 피해가 속출해 관계 당국이 긴급 복구작업을 벌였다.

▲ 새누리당 4선 중진인 원유철 의원이 12일 오전 차기 원내대표 후보로 홀로 등록했다.

▲ 무장한 북한군 10여명이 지난 11일 강원도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와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북쪽으로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 북한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의 방북 때 항공편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 주택경기 회복세와 저금리 기조에 힘입어 주택청약종합저축 잔액이 지난해 5월 말 30조5425억원에서 올해 5월 말 41조3806억원으로 1년 사이 10조원 넘게 증가했다.

▲ 담배에 붙는 세금이 인상돼 담뱃값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오른 지 6개월만에 올해 상반기 담배 판매량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8% 감소했지만 담배 세수는 1조2천억원 늘어났다.

▲ 영국의 국제금융전문지 '더 뱅커'가 최근 우량자본의 크기(Tier1 기본자기자본 규모)를 기준으로 세계 1천대 은행을 선정한 결과 상위권에 중국 은행이 다수 포진했지만 우리나라 은행은 50위 안에 한 곳도 들어가지 못했다.

▲ 연금정보를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통합연금포털 사이트(100lifeplan.fss.or.kr)에 지난 9일까지 모두 4만8801명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 모바일 앱 평가기관인 웹발전연구소(대표 문형남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교수) 평가 결과 장애복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만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장애인 접근성이 '낙제점'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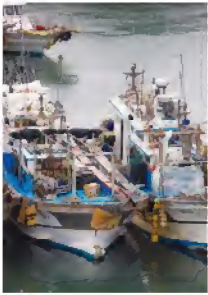
▲ 지난해 12월 외환카드와 하나SK카드의 합병으로 새 출발한 통합 하나카드가 이달 20일부터 전산시스템을 통합 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한국 신용카드의 '맏형'인 외환카드가 37년만에 사라진다.

▲ 지난 5월말 탄저균 실험 표본이 주한미군 내 실험시설에 배달된 사고와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양측 관계부처와 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합동실무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가뭄 피해, 경기 침체 등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관해 여야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정부는 지난 9일 11조8000억 규모의 추경 편성을 국회에 요청했다.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2일 KBS-1TV 시사프로그램 일요진단에 출연해 "한국은행이 올 경제성장률을 2.8%로 예측하고 하반기 세계경제의 흐름 변수가 있으나 22조원의 재정보강정책을 조기집행하면 3% 성장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12일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청년원탁토론에 참석하기 직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회 폐지를 요구한 혁신안에 대해 "(계파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최고위 폐지"라고 거듭 강조했다.

▲ KT는 인천공항 여객터미널에 설치된 프리미엄 와이파이AP(액세스포인트)를 이달 중 기가 와이파이(무선인터넷)로 모두 교체, 초고속 인터넷(100Mb)보다 최대 10배 빠른 기가급 인터넷을 즐길 수 있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경영진 탐욕에 도시바 '흔들'

도시바 회계조작 '2조원'… "투자자 신뢰 배반" 거센 비판

일본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전자기업 도시바가 경영진의 탐욕에 흔들리고 있다. 도시바가 과다 계상한 영업이익 총액이 무려 2000억 엔(약 2조원)으로 불어났고 이로 인해 시장의 신뢰가 무너지면서 도시바는 자금조달 문제에 직면했다. 도쿄증권거래소는 도시바를 특별주의종목으로 지정할 전망이다. 일본 금융당국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예정이어서 사태가 어느 선까지 확대될 지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본 내에서는 경영진 간 대립과 탐욕을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12일 마이니치신문은 이번 사태의 뒤에는 최고경영진 사이의 불화와 이들의 이익지상주의가 도사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사키 노리오 부회장이 사장 시절 니시다 아쓰토시 전 사장보다 나은 실적을 요구했고 이것이 회계조작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니시다 전 사장은 현 상담역으로 사사키 부회장과 대립하고 있다. 일본 재계에서는 '사장이 바뀔 때마다 파벌이 바뀐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도시바 내 파벌 대립이 극심했다고 전해진다.

도시바는 지난해 4월로 끝난 회계연도 기간까지 모두 5년 간 회계조작 규모가 2000억 엔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자위원회(위원장 우에다 히로카즈 전 도쿄고검 검사장)의 조사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다. 당초에는 인프라 관련 사업에서 548억 엔(약 5000억원)정도의 회계조작이 알려졌을 뿐이다. 현재는 컴퓨터, TV, 반도체 등 사업 전반에 걸쳐 회계조작이 드러나고 있다.

회계조작의 실체가 드러나자 일본 내에서는 '투자자의 신뢰를 배신한 행위'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신뢰가 무너지면서 도시바는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시바는 신용하락으로 자금 조달이 막히는 사태를 대비하고 있다. 주거래 은행에 5000~6000억 엔(약 4조6000억~5조5000억원)의 '차입한도 증액' 신용공여 설정을 요청하고 보유 주식과 부동산 등의 자산 매각도 검토 중이다.

도시바는 회계조작 의혹이 불거진 지난 5월 3자위원회에 조사를 위촉했다. 3자위는 이르면 오는 17일 조사결과를 정리한다. 도시바는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조사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이후 과거 성과를 수정하고 연기 중인 2015년 3월기 연결 결산을 발표할 예정이다.

/송병형기자 bhsong@metroseoul.co.kr

그리스 문제 다룰 EU 정상회담 취소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이 11일(이하 현지시간) 회의에서 그리스의 협상안에 대한 결론을 유보하고 12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 회의 결과를 참고해 12일 그리스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었던 유럽연합(EU) 정상회의는 취소됐다. 대신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정상들만 모여 논의하기로 했다. 사진은 회의결과를 설명 중인 예룬 데이셀블룸 네덜란드 재무장관의 모습. /연합뉴스

주한미군 탄저균 실험, 한미 합동조사단 구성

이달중 배송사고 이후 처음으로 오산기지 현장방문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산하에 한미 합동실무단(JWG)을 구성해 주한미군의 탄저균 배달사고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탄저균 실험장소인 오산공군기지를 이달 중 현장조사하고 탄저균 실험의 몸통인 미국의 주피터(목성) 프로젝트에 대한 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12일 외교부에 따르면 합동실무단은 지난 11일 구성됐다. 기존의 SOFA 합동위나 산하에 있는 20개 분과위와는 별개로 설치된 조직으로 탄저균 배달사고를 다루기 위한 한시조직이다. 우리 측에서는 국방부 정책기획관이, 주한미군에서는 기획참모부장(소장급)이 각각 양측 단장을 맡았다. 통상 SOFA 합동위 산하 한미 양측의 협의채널은 관계부처 과장급과 주한미군 대령급이 맡아 왔다. 정부는 소장급 단장인 만큼 보다 효과적인 협의와 협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합동실무단에는 우리 측의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국군의무사령부, 국방과학연구소, 질병관리본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관세청, 민간 법률 및 미생물 분야 전문가 각 1명 등이 참여한다. 한미 양측에서 최소한 20명 이상이 참여할 전망이다.

합동실무단은 이달 중으로 오산공군기지 검사실을 방문해 기술적인 공동조사와 평가를 실시한다. 탄저균 사고 이후 처음이다. 미국 측이 이달 중으로 발표할 예정인 자체 조사결과를 참고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무엇보다 한국에서 진행돼 온 목성 프로젝트의 실체가 드러날 지 주목된다. 미 국방부는 목성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탄저균 실험을 실시했다. 주한미군에 따르면 탄저균 샘플은 목성 프로젝트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난 4월 26일 반입됐다.

한미는 오는 15일 SOFA 정기 합동위원회(제195차)를 개최해 탄저균 배달사고를 정식 의제로 상정한다. 이때 이번 사고 이후 진행과정과 한미간 협의사항 등을 검점하고 합동실무단 활동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합동실무단이 SOFA 합동위 산하에 설치되는 이유는 탄저균 배송 문제가 SOFA 규정과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규정 자체를 개정하는 것은 시일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운영절차 개선을 통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송병형기자

방심위, 인터넷 게시글 직권 삭제 추진

포털사이트 블로그·카페 등 직격탄 맞을 듯
"수사권도 없이 검찰 행세하며 언론 통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가 당사자의 신청 없이 제3자의 요청이나 직권으로 인터넷 게시글을 심사해 삭제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포털의 블로그, 카페, 커뮤니티 게시글이 직격탄을 맞을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이 게시글들은 뉴스 보도보다 비판에 자유로우면서도 일부 유명 누리꾼의 글은 영향력 면에서 오히려 뉴스보도를 능가할 정도다. 댓글이 끝도 없이 달린 게시글도 많다. 뉴스보도에 달린 댓글은 저리가라다.

앞서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는 '포털 공개형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제안하고 정부와 기업에 '오피셜 댓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모두 비판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조치라는 비판이 많다. 포털 스스로의 의지가 아닌 정치·사회·경제 권력이 배후에 있다는 의혹이 무성하다. 이른바 기득권이 야합한 포털 장악 음모라는 시각이다. 당사자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음모론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언론에 이어 누리꾼의 입에까지 재갈이 물릴 경우 포털 장악은 현실화되기 때문이다.

12일 새정치민주연합 표현의자유특별위원회(위원장 유승희)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는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방심위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터넷 게시글이 명예훼손성으로 판단될 경우 당사자 신청 없이 심의를 개시하고 삭제할 수 있도록 사전검열을 강화하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을 시도하였다 무산되었으나 차기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심위의 이 같은 시도는 수시로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되는 대통령, 고위공직자, 권력자와 국가 권력기관에 대한 비판을 손쉽게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될 우려가 매우 크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비판, 표현의 자유를 억압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저지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0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1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네이버-다음카카오 포털 뉴스제휴 심사 기구에 관한 첫 회의에서 유봉석(왼쪽 세번째) 네이버 이사, 임선영(왼쪽 두번째) 다음카카오이사 등 참석자들이 제3의 기구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시민사회도 이미 비슷한 내용의 성명을 낸 바 있다. 지난 9일 민주시민언론연합, 사단법인 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는 공동성명을 통해 "대통령, 고위공직자 등 공인에 대한 비판글에 대하여 제3자인 지지자나 단체의 고발이 남발되어 이들에 대한 비판 여론을 신속하게 삭제, 차단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행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은 제10조 2항에서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심위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 신청'을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요청 혹은 직권'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시민사회와 야당은 규정 개정 이후 일부 보수단체나 개인의 심의 요청이 빗발칠 것으로 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풍자그림을 그린 작가와 사라진 7시간 의혹을 보도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에 대한 고발을 실례로 들었다. 또 방심위가 제3자의 소명자료와 의견에 의존해 해당 게시글의 명예훼손을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수사권도 없는 방심위가 검찰을 대신하는 일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는 재판에서 결론이 난다. 이를 피해 손쉽게 비판여론을 원천봉쇄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이다.

방심위의 꼼수는 의사일정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방심위는 지난 7일 의사일정을 공개하면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일부개정 규칙안 입안예고에 관한 사항을 보고안건 중 하나로 올렸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송병형기자 bhsong@metroseoul.co.kr

새누리, 원내대표에 원유철 합의추대

정책위의장엔 김정훈

새누리당이 오는 14일 의원총회에서 단일후보로 출마하는 4선의 원유철(경기 평택갑) 원내대표 후보와 3선의 김정훈(부산 남갑) 정책위의장 후보를 합의 추대할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내년 총선에서 가장 불안한 지역으로 꼽히는 수도권과 부산 지역 의원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합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당내에서도 강력한 반발은 없는 상황이어서 두 후보는 큰 무리 없이 새 원내 지도부를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원내 투톱이다. 원내대표가 정책위의장을 러닝메이트로 선택하는 이유다. 원 의원은 김 의원을 파트너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제가 수도권 출신의 원내대표 후보인 만큼 정책위의장은 영남권에서 맡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당청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개혁 과제를 힘있게 추진하려면 추진력이 있고, 금융과 경제 쪽에서 일했던 정무위원장 출신이자 육사 출신인 김 의원이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새롭게 출범하는 원내지도부는 당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과 상의를 거쳤다"고 했다. /윤정원기자

뉴호라이즌의 우주쇼… 드러나는 명왕성의 실체 무인탐사선 뉴호라이즌호가 오는 14일(미국시간) 밤 인류사 최초로 명왕성에 가까이 다가가 근접 촬영 사진을 보낼 예정이어서 미항공우주국(NASA)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명왕성은 2006년 8월까지 태양계의 9번째 행성이었지만 주변에 행성급 천체들이 잇따라 발견되자 행성 지위를 상실했다. 그리스신화의 지옥왕의 이름을 가진 명왕성 주위에는 스틱스·카론·케르베로스·닉스·히드라 등 지옥과 관련된 이름을 가진 소행성들이 있다. 사진은 지옥의 뱃사공인 카론(왼쪽)과 명왕성의 모습. /NASA 홈페이지

"메르스 추경으로 재정건정성 더 악화"

국회 예산정책처, 정부 추경안 정면 비판

정부가 11조 8000억원에 이르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한 가운데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추경안으로 국가 재정건전성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회계 세출 구조조정을 위한 적극적 노력 없이는 세수 부족·확장적 재정정책에 의해 적자국채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또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포함된 세부사업에 대해서도 무더기로 '문제' 판정을 내렸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신규 확진환자가 나흘째 '0'을 기록한 지난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공용브리핑룸에서 열린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 취재진이 거의 없어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145개 추경 세부사업에 대한 분석 결과 36개 사업에서 45건의 문제점이 파악됐다. 우선 16건은 연내에 집행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 예로 총 684억원이 증액되는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중 구매 대금 555억원이 책정된 항바이러스제는 실제로는 내년에 필요한 약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재정법은 연내 집행 가능성을 추경의 중요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업계획이나 사전절차 등 사전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사업도 16건에 달했다. 감염병 관리시설·장비 확충 사업에는 1447억원이 반영됐으나 구체적 지원계획이 마련되지 않았다. 지자체 실제 수요와 보건소 구급차 보유 현황 등도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총 4000억원이 책정된 의료기관 융자 사업 역시 △융자 신청기관 △심사기준 △융자방식 △지원규모 등 구체적 사업계획이 없는 상태다.

예산정책처는 추경 세입예산에 대한 낙관적인 과대계상과 추경을 통한 세수보전이 일상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예산정책처는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예상치 못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것이지만 최근에는 특별한 위기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세수결손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를 보전하기 위한 추경이 편성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입예산은 정책의지가 반영된 주관적인 '목표치'가 아니라 경제현실을 반영한 객관적인 '전망치'"라고 했다.

또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세입여건 진단 및 향후 세수전망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국세정보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공개 시차를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소득세 미시자료 등 세법개정 세수효과의 추정에 활용될 수 있는 국세정보의 공개를 요구했다.

/윤정원기자 garden@

"경력법관 사퇴" 변호사 1052명 집단행동

"변호사법 위반 부적격 판사" 법원 행정처에 성명서 제출

경력법관 임용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대법원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변호사에 대한 법관 임용을 강행한 가운데 일선변호사들이 해당 임용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이를 지지하는 연서를 받는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법관 임용 취소를 촉구하며 변호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12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인 변환봉(법무법인 율, 연수원 36기) 변호사는 현직 변호사1052명을 대표해 "부적격 판사의 사퇴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13일 오전 법원행정처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로스쿨 출신 법관 임명식에서 신임 법관 37명이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서에는 중견 변호사뿐만 아니라 신입변호사, 로스쿨 출신 변호사, 법원·검찰 출신 변호사까지 다양하게 참여했다. 이에 앞서 변 변호사는 개인 자격으로 지난 1일 수임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경력 법관 임용자 박모(31·변호사시험 1회)판사를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변호사들은 성명서를 통해 "경력법관으로 임용된 판사들 중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한 후 일반 로펌에서 재판연구원 재직 시절 취급한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행했다는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지적하며 "변호사단체는 엄격한 잣대를 통해 국민이 법조에 대해 가지는 신뢰를 최대한 지켜내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반해 대법원은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논란을 일으킨 박모 판사를 향해서는 "변호사법위반 혐의가 문제될 당시 스스로 사퇴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대법원의 인사전반에 부담을 지우는 것은 물론, 스스로의 양심에 거리끼는 임용에 나아가는 모습에서 해당 본인의 법관으로서의 자질과 양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박모 판사는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대구고등법원에서 재판연구원(로클럭)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뒤 입사한 법무법인에서 해당 사건을 수임했다. 경력법관 임용을 앞두고 이 같은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논란이 됐지만 대법원이 법관 임용을 강행하면서 변호사들의 반발을 불렀다.

서울지방변호사회도 이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지난달 29일 박씨에 대한 '부적격 경력법관 임용취소 항의서한'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하루 뒤인 30일 법관인사위원회를 개최, 박씨의 행동이 신뢰를 저해하는 측면은 있다면서도 임용을 철회할 정도는 아니라며 임명을 강행했다.

/연미란기자 actor@metroseoul.co.kr

문서 위조한 '방사청 간부' 실형

선배 부탁으로 물량 늘려

보훈단체가 운영하는 군수물자 납품업체의 수의계약 물량을 불법으로 늘려준 혐의로 기소된 방위사업청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은 맹준영 판사는 공문서변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방위사업청의 장비물자계약 업무를 총괄하는 보직을 맡아 일하는 동안 고등학교 선배인 오모씨로부터 자신이 임원으로 있는 업체의 수의계약 신규 물량을 늘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해당 업체는 원가 부풀리기와 불법 하청이 적발돼 기존 물량 배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는데도, 김씨는 오씨의 부탁대로 신규 물량 배정 안건이 군수조달실무위원회에 상정되게 했다.

그러나 업체가 신규 품목 배정 대상에서 제외되자 오씨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달라고 김씨에게 요청했다. 이에 김씨 등은 지침 개정을 추진하다 의결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의결을 통과한 개정안 서류를 위조했다.

위조된 지침 개정안은 방위사업청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전송돼 확정된 개정 지침으로 발령됐다.

결국 범행은 수사기관에 적발됐다. 하지만 김씨가 오씨 등 해당 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대가를 받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날 맹 판사는 "피고인의 범죄로 방위사업 업무에 관한 투명성과 공정성이 저해되고 군수물자 조달 업무의 질서가 훼손됐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홍원기자 hong@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강세준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로또복권 제658회

1등 당첨번호						2등보너스숫자
8	19	25	28	32	36	37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원)
1등	6개 숫자 일치	1,634,031,375
2등	5개 숫자 + 2등 보너스 숫자	64,501,239
3등	5개 숫자 일치	1,460,696
4등	4개 숫자 일치	50,000
5등	3개 숫자 일치	5,000

상속한정승인공고

공고인은 망 김 형 민 (530507-1******)의 상속재산의 상속한정승인자로 민법 제103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자는 공고기일내에 그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2.24사망) 단 공고기일내에 채권 또는 유증을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함
사건번호: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4277 상속한정승인
공고인: 김선자,김수지 (010-2596-7836)
수리일: 한2015년5월8일자 한정승인(2015년7월2일)
공고기간: 2015년7월13일~2015년9월13일
주 소:서울 강남구 개포로109길 5,106동 706호(개포동,대치아파트)

9호 태풍 찬홈 영향으로 내리는 비 제9호 태풍 찬홈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린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확인시 HACCP인증 취소

송학식품 등 특별점검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떡류 제조업체 중 '식품위생법' 위반이 확인되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취소할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특히 송학식품이 부적합 성적서를 적합으로 조작하고, 제품 포장지를 바꿔치기해 품목제조정지 기간 중 제품을 생산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HACCP 인증을 취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HACCP 인증이 취소되면 송학식품은 떡, 떡볶이 등 떡류 제품의 제조·판매가 금지된다. 떡류의 경우 HACCP인증이 '14년부터 '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적용되는 품목이며 HACCP 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제품 제조·판매를 할 수 없게 된다.

품목제조정지 기간 중 제품을 제조·판매한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실시해 모든 식품의 제조·판매 등 일체의 영업행위를 정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송학식품이 생산한 떡류 제품을 수거해 대장균 검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검사 결과에 따라 회수조치를 실시하는 등 부적합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현재 HACCP 인증을 받은 떡류 제조업체 중 규모가 큰 30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하고 있다.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불량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가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식품안전관리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최치선기자 chisunti@

서울시·서울중앙지법, 생활 법률지식 '법문화강좌' 운영

서울시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생활에 필요한 법률 지식을 소개하는 법문화강좌를 운영한다.

12일 서울시는 서울중앙지법과 함께 판사와 변호사가 생활에 필요한 법률 지식을 소개하는 '법시민강좌'를 오는 22일부터 내년 4월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법문화강좌는 서울중앙지법이 2012년 처음 시작한 행사로 올해 처음으로 서울시가 공동 주최한다. 올해 법문화강좌는 법원과 시청에서 나눠서 열린다.

22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에서 열리는 첫 강의에서는 서울중앙지법 전지원 부장판사가 '주택·상가 임대차와 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강의는 이후 내년 4월 27일까지 매달 넷째 수요일에 진행된다.

내용은 세금 관련 법률 문제와 금전 거래 때 주의해야 할 사항, 친족이나 상속 관련 법률 분쟁, 등 생활에서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연미란기자

메르스 사실상 '종식 선언'…붐비는 면세점 전국을 꽁꽁 얼어붙게 했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우리 사회에서 사실상 종식됐다. 메르스 신규 환자는 이달 5일 이래 발생하지 않아 12일 현재 7일째 0명이다. 낙타를 통해 감염된다는 메르스 환자가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지 53일만이다. 사진은 12일 서울 중구 롯데면세점이 쇼핑객들로 붐비는 모습. /연합뉴스

박지만 4번째 법정 출석 불응

法, 과태료 처분 시 '만인평등주의' 무시

박지만(사진) EG회장이 '청와대 문건유출' 재판에 대한 법원의 증인 출석 요구에 또 다시 불응했다. 박 회장은 앞서 이 재판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를 세 차례 거부하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최근 박 회장 측으로부터 네 번째 불출석 사유서를 받았다. 법원이 지난 1일 출석 요구서를 발송한 데 따른 것으로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제151조는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증인에게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부담토록 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태료 처분은 반복이 가능해 박 회장이 이번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또 다시 같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구인장을 발부해 법정으로 강제구인하거나 교도소·구치소 등에 7일 이내 감치를 할 수도 있지만 박 회장이 현직 대통령의 동생이라는 점에서 감치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일각에선 현직 대통령의 동생이며 한 기업의 오너라는 이유만으로 박 회장에 대한 처분이 과태료에 그치는 것은 평등주의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대법원은 1996년 개정 조례된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에관한 조례안'과 관련, "증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라 과태료 액수에 차등을 두고, 증인의 불출석이나 증언거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다. 지위의 높고 낮음만을 기준으로 한 것은 차별이며, 헌법에 규정된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

한편 박관천 경정과 조응천 청와대 전 비서관은 박 회장에게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수시로 건넨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5월부터 사건 핵심 증인인 박 회장에게 세 차례 증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청했다. 그러나 박 회장은 처음에는 이유 없이, 두 번째는 EG 노사 갈등으로 출석이 어렵다는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달 30일 박 회장은 세 번째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법원은 출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내렸다.

/이홍원기자 hong@metroseoul.co.kr

"국세청 6년간 더 걷은 종부세 돌려줘야"

25개 기업, 초과징수 된 180억 반환 소송 전망

국세청이 지난 6년간 거둬들인 종합부동산세 중 일부가 이중과세에 해당돼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그간 25개 기업에서 초과 징수된 금액이 1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가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국민은행과 KT, 한국전력, 신세계 등 25개 기업이 각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종부세법 기본 취지가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세액 계산시 재산세를 공제하도록 한 것"이라며 "국세청이 마련한 시행규칙에 따른 세액산정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소송을 낸 25개 기업은 파기환송심을 통해 과세된 180억여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행법으로 이들 기업이 모두 환급받기는 어려워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는 직접 신고해 납부하는 방식과 납세고지서대로 내는 부과고지 방식으로 나뉜다. 이에 따라 부과고지로 납부한 경우 고지서를 받은 뒤 9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해야만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신고방식으로 납부한 경우 국세기본법 등에 따라 납부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나 소송을 낼 수 있어 추가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미란기자

'요양급여비' 부당하게 챙긴 '허위 병원·약국' 실형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를 부정하게 타낸 병원·약국 사무장들이 법원의 처벌을 받았다.

12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정도영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방사선사인 A씨는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정해진 의료법을 위반하고 2012년 7월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에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했다.

A씨는 같은해 8월 의사·간호사 등 8명을 고용하고 H의원을 개원해 지난해 9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5억9000여만원을 받았다.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차리고 요양급여비 약 50억원을 수급한 청주의 한 약국 대표와 약사도 적발됐다.

앞서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4일 청주 B(54) 모 약국 대표와 약사 C(80)씨를 약사법 위반과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부정 수급 비리가 적발되면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부당하게 타낸 요양급여비는 전액 환수할 것"이라며 "향후 거짓 청구비율이 전체 급여 청구액의 20%를 넘는 요양기관은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홍원기자

타인 은행계좌에 잘못 송금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을 때

생활 법률

최근 정모씨는 5000만원을 타인의 은행계좌에 실수로 송금해 곤욕을 치렀다. 수취인이 송금된 돈을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씨는 수취인에게 전화를 해 자초지종을 설명했지만 수취인은 정씨의 돈이 맞냐며 오히려 반환을 거부했다.

결국 서로 얼굴까지 붉히는 상황에서 정씨는 수취인을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냈다. 이후에도 은행 측이 수취인에게 계속 정황을 설명했지만 수취인은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틀간 수취인이 전화를 받지 않는 사태까지 일어났다.

이럴 경우 법적 소송 등을 통해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송금인은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돈을 받아낼 수 있다. 단 돈을 받은 수취인의 은행 측은 자금 중개를 담당할 뿐 이득을 얻은 게 없어 피소송자가 될 수 없다. 수취인을 상대로만 소송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수취인이 돈을 인출할 것을 대비해 소송을 내기 전 수취인의 예금채권 등을 법원을 통해 가압류해 둘 필요가 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취인이 앞서 돈을 써버렸다면 어떻게 해야될까. 이 같은 경우는 형법상 횡령죄이기 때문에 해당 혐의로 검찰이나 경찰에 고소할 수 있다.

최근 대법원은 비슷한 사례에 대해 "보내고 받는 사람 사이에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한 보관관계가 성립한다"며 "본인 계좌에 돈이 들어왔다고 마음대로 돈을 쓰면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신의칙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 이행을 신의에 좇아 해야한다는 민법 2조 1항의 원칙이다.

/유선준기자 rsunjun@

범삼성가 3세, 여장군 1명에 그냥 남자들

이부진, 시내면세점 사업권 전쟁서 뚝심 발휘
이재용, 갤럭시 시리즈 판매 부진… 매출 하락
정용진, 면세점 참패에 이어 유통업 실적 부진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삼성가는 바야흐로 이부진 시대인 듯 하다. 이번엔 현대가와 손잡은 '신의 한수'가 통했다.

호텔신라 이부진 사장과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의 합작법인 HDC신라면세점은 지난 10일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권을 따냈다. 지난해 시장 매출 8조3000억원, 올해 매출 10조원이 넘을 것으로 기대되는 황금알의 주인이 된 것이다.

당초 호텔신라는 면세점 독과점 문제가 대두되며 낙찰 가능성이 희미했으나 결과는 대승이었다. 이 때문에 호텔신라의 우선주는 10일 기준 6월 1일 대비 63%나 상승했다.

이부진 사장은 최근 수 개월동안 면세점 사업과 직결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직접 발로 뛰었다.

지난달 29일엔 늦은 오후 중국 베이징으로 날아가 3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8시간 동안 쉬지 않고 중국 주요 여행사와 외교부 관계자를 만나 '한국 관광 유치' 활동을 펼쳤다. 지난 2일에는 정몽규 회장, 지방자치단체장 등과 함께 '대한민국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비전 선포식'도 열었다.

이 사장은 9일 프레젠테이션 발표장을 방문했을 당시 직접 떡을 돌리며 공을 들이기도 했다. 또 주요 임직원들에게 "너무 걱정마세요. 잘 되면 다 여러분 덕이고, 떨어지면 제 탓이니까요"라고 말하며 '내 탓 네 덕' 경영철학을 보여주기도 했다.

10일 '승전보'를 접한 이 사장은 해외 출장 중인 정몽규 회장과 통화해 축하 인사를 주고 받은 뒤 HDC신라면세점 CEO들과 실무진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은 이부진의 경영을 '대인배'로 평가하기도 했다.

실적도 이부진 사장의 리더십을 뒷받침해 준다. 호텔신라의 지난해 매출은 2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6.64%나 신장됐다. 올해 1분기 매출은 828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46% 상승했다.

반면 이재용이 이끄는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매출은 47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91%하락했다. 지난해 매출 역시 206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90% 줄었다. 올 상반기 출시된 갤럭시S6와 갤럭시S6엣지의 판매 역시 기대치를 밑돌며 '이재용폰'이 빛을 발하지 못했다. 더욱이 메르스 사태에 따른 서울삼성병원의 미흡한 대책 문제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마저 제동이 걸리며 동생 이부진과 더욱 비교되고 있다.

범삼성가인 신세계그룹의 정용진 부회장도 이번 면세점 입찰전에서 고배를 마시며 사촌지간인 이부진 사장과 비교된다. 정 부회장은 3세 승계를 위한 경영능력 검증에 나서고 있으나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사활을 다한 면세점에서 참패한 것은 물론 마트, 백화점, 편의점 등의 주력 사업인 유통업 실적이 부진한 상태다. 한식뷔페, 수제맥주집 등으로 골목상권 논란에도 서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그룹의 핵심부는 오너가 어떤 성과를 가져오느냐를 능력으로 본다. 오너 홍보가 그 사람의 능력이 될 수는 없다"며 "이건희 회장의 건강이 좋았다면 삼성가의 포스트 이건희는 이부진 사장일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현기자 minus@metroseoul.co.kr

현대·기아차, 소형 SUV로 해외 공략

印·中 등서 크레타 앞세워

현대·기아자동차가 올해 상반기 부진한 판매실적을 만회하기 위해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내세워 글로벌시장 공략에 발 벗고 나섰다.

12일 각사에 따르면 현대차는 올해 상반기에 총 241만6626대를 판매해 전년 대비 2.2% 감소했고 기아차는 152만9441대를 판매해 1.2% 감소했다.

이에 따라 현대·기아차는 인도와 중국 등에 현지 모델의 소형 SUV를 출시하고 미국과 유럽에도 신형 SUV를 차례로 선보이는 등 소형 SUV의 글로벌시장 공세 수위를 높여 간다는 방침이다.

현대차가 지난달 인도 시장에 출시한 소형 SUV 크레타는 한 달간 1614대가 판매돼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다. 현대차의 해외 전략형 소형 SUV인 크레타는 8월부터 중동과 아프리카 시장에도 출시되며 내년 이후에는 러시아와 브라질에도 출시될 예정이다.

한국을 비롯한 미국과 유럽 등 현대·기아차의 주력 시장에선 신형 투싼(사진)과 스포티지가 선봉에 선다.

지난 3월 국내에 먼저 선보여 인기를 모으고 있는 신형 투싼은 8월에 미국, 9월에는 유럽에 각각 출시된다.

3분기 국내를 시작으로 글로벌 시장에 출시되는 기아차의 신형 스포티지도 카니발, 쏘렌토에 이어 또 한번의 돌풍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이자 소형 SUV의 최대 경쟁지인 중국에서도 현대·기아차의 양대 주력 모델이 선전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출시된 현대차의 현지모델 ix25는 올해 1~5월까지 4만948대가 판매돼 중국 SUV 시장에서 혼다의 베젤(4만2354대)에 이어 판매실적 2위를 기록했다.

기아차의 KX3는 판매를 시작한 지난 3월부터 월평균 5000여대씩 팔려 중국 소비자들의 꾸준한 선택을 받고 있다. /정용기기자 yonggi@

"종심제, 최저가낙찰제 폐지 취지 살려야"

건산연, 저가 낙찰·대기업 편중 등 문제 제기
중소업체 보유 실적 전액 인정 등 조치 필요

최저가낙찰제의 대안으로 도입된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가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가 심사 폐지와 대·중소 기업 간 수주 불균형 해소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최근 발간한 '종합심사낙찰제 개선 및 제도 정착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종심제는 기존 정부 발주공사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공사수행능력·가격·사회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낙찰자 선정 제도다.

하지만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1차 시범사업에서는 낙찰률이 71%로 오히려 최저가낙찰제보다 낮았다.

낙찰률이 낮으면 공사업체가 그만큼 저가수주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

또 입찰금액의 변별력이 떨어지고 대형 건설사 위주의 수주 집중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보고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투찰가격 평가 방법 개선 ▲단가심사제도 폐지 ▲중견·중소 기업의 보호 대책 ▲공사수행능력 평가의 개선 등을 제시했다.

투찰가격 평가의 경우 현재 입찰자 대부분이 투찰가격 평가에서 만점을 받는 등 분별력이 없었다. 결국 공사수행능력 평가 항목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큰 동일 공사 실적이 우수한 대형사가 수주를 과점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최민수 건산연 건설정책연구실 실장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낙찰자 자신의 견적에 의거해 자유롭게 투찰토록 하되, 저가 투찰을 유인하는 인위적인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투찰가격 평가 방식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세부 공종의 단가 심사를 강화해 적정 낙찰률을 유도할 계획이지만 이를 시행할 경우 인위적인 낙찰률 결정, 전략적 가격 투찰, 운(運)에 의한 낙찰, 담합 우려, 견적 능력 저하 등의 문제점이 제기된다"며 "단가심사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만약 단가 심사를 존치한다면 건설공사비지수의 상승률 대비 표준시장단가의 상승률 등을 고려해 단가심사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중견·중소기업의 보호 대책으로는 동일공법실적 평가에서 중견·중소 건설사의 경우 지분율에 관계없이 보유 실적을 전액 인정할 것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계약이행능력 평가는 동일공사실적이나 전문화율, 시공평가, 사회적 책임 점수 등이 1년간 고정되는 현상을 탈피해야 하며, 해당 공사에 특화된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 지표를 마련하고, 발주자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김형석기자 khs84041@

4대銀 2Q 실적 줄 듯… 신한 '선두' 예상

KB, 희망퇴직 비용 발생 등 성적 '최하'
하나-우리, 민영화·통합 불확실성 존재

국내 4대 시중은행의 2분기 순이익이 전분기 보다 감소할 전망이다.

저금리·저성장 기조로 은행의 전통적 수익원인 순이자마진(NIM)이 줄어든데 따른 결과다.

은행(지주)별로는 신한금융지주가 선두를 다시 이어갈 가운데 희망퇴직과 대손충당금 등 일회성 요인에 따라 우리은행과 KB금융그룹의 순익은 시장 기대치를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

◆ 신한금융, 선두 탈환…금융사 2분기 희비교차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는 신한·KB·하나·우리은행이 올 2분기 1조4500억원의 순익을 달성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는 국민은행의 희망퇴직 비용 3300억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지난 1분기 이들 은행의 순익은 1조8720억원이었으며 지난해 2분기는 2조2610억원이었다.

특히 지난 1분기 가장 많은 순익을 기록했던 KB금융은 구조조정 등의 비용 발생으로 4대금융사 가운데 가장 저조한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다.

구경회 현대증권 연구원은 "2분기 KB금융의 지배기업순이익은 1500억원, 구조조정 비용을 제외한 수정순이익은 4000억원으로 추정된다"며 "자회사 국민은행이 희망퇴직(1121명) 비용이 발생한데다 NIM이 10bps 이상 하락하면서 이자이익이 감소하는 것이 다소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신한금융지주는 다시 선두를 탈환할 것으로 보인다.

최진석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신한금융지주의 2분기 순익(6108억원)은 양호한 성장과 비이자이익 호조세로 컨센서스를 13% 상회할 전망"이라며 "2분기 포스코플랜텍 670억원과 STS반도체 150억원 등 일회성 충당금 부담이 발생했으나 중소기업대출이 1분기에 비해 크게 증가하는 것을 감안해 보면 대손비용 부담은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정욱 대신증권 연구원은 "신한지주의 2분기 순이익은 563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6% 감소하지만 시장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양호한 실적을 시현할 것"이라며 "대출 수요 증가로 중소기업대출이 크게 순증하는 등 NIM 하락에도 불구하고 높은 성장성으로 순이자익 감소 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융지주사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 우리銀·하나금융, 민영화-통합 불확실성 존재

같은기간 우리은행의 순이익은 2030억원의 순이익을 올려 1분기보다 33.0% 감소할 것으로 현대증권은 예상했다.

구경회 현대증권 연구원은 "NIM의 하락으로 이자이익은 전분기 대비 1% 감소할 전망"이라며 "대손비용은 대기업 부실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분기대비 2%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구 연구원은 "우리은행의 주가는 대주주(예보) 지분 매각이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경영권 매각이 이뤄질 경우 주가에는 긍정적 영향을 주겠지만, 일부 지분 매각에 그칠 경우 주가에 큰 영향을 주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반면 하나금융그룹은 일회성 유가증권 매각익 증가로 비교적 선방할 전망이다.

최 연구원은 "2분기 하나금융의 추정 순익은 3675억원으로 컨센서스를 26.5%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2분기 포스코플랜텍 관련 일회성충당금은 700억원 내외 적립 부담이 발생했으나 대손비용은 전분기와 비슷한 28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비이자이익도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다만 "하나·외환은행 통합 중지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결론이 불확실한 상태"라며 "연내 통합이 어려울 경우 등록면허세로 약 2000억원 손실 위험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2분기 그룹 NIM은 1.79%로 전분기 대비 4bp 하락하였을 것으로 추정됐다.

구 연구원은 "하나금융의 이자이익과 대손비용은 부진하지만 수수료 증가와 유가증권 운용실적의 개선에 힘입어 2분기 지배기업순이익은 3350억원으로 컨센서스(2980억원)를 상회할 전망"이라며 "다만 NIM 하락(-4bps 수준)으로 이자이익은 정체되고, 포스코플랜텍 등의 부실로 대손비용이 전분기대비 14% 늘어날 것으로 보여 기초 실적은 아쉬운 편"이라고 평가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KB금융그룹 '하반기 그룹경영진 워크숍' KB금융그룹은 10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KB손해보험 인재니움 수원연수원에서 윤종규 회장과 각 계열사 대표이사와 임원 등 100여명이 참여한 '하반기 그룹경영진Workshop'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KB금융그룹 제공

신한銀, 계좌이동제 대비 '주거래 우대 통장·적금' 출시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

신한은행은 하반기 시행될 계좌이동서비스에 대비해 '신한 주거래 우대 통장·적금 패키지'를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거래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강화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으로 급여이체 뿐만 아니라 카드결제나 공과금 자동이체 고객에게도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통장은 직장인이나 주부고객 등 누구나 쉽게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신한카드 결제실적이 월 30만원 이상이나 공과금 자동이체를 하는 경우 전자금융수수료 월30회,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인출수수료 월 30회, 타행이체수수료 월 10회 면제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급여와 연금 등이 월 50만원 이상 입금 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수수료와 자동화기기 인출 시 횟수에 제한 없이 수수료가 면제된다. 아울러 타행 자동화기기 인출 수수료 월 5회 면제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

적금은 주거래 고객에게 거래실적에 따라 최고 연 1.30%p까지 추가 이율과 코레일 제휴 관광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입대상은 15세이상 개인과 개인사업자로 신한은행 전 영업점과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을 통해서 가입할 수 있다.

이 상품은 급여나 연금 입금 또는 생활비 입출금 거래 시 연 0.50%p의 우대 이율을 적용한다.

이밖에 S-bank 가입과 적립식 상품 자동이체 등 부가 서비스 이용 시 연 0.80%p 우대 이자가 추가로 적용돼 3년제 기준 최고 연 2.8%까지 금리를 준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고객 거래 형태를 세분화해 맞춤형 서비스와 고객의 편의성 제고에 초점을 맞춰 설계됐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신한은행을 간편하고 쉽게 주거래은행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과 혜택을 강화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김정태 "하나·외환, 차이 인정해야"

'마케팅 영웅-영업의 新' 행사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은 지난 10일 외환은행 본점 강당에서 우수 영업직원 200명을 초대해 '2015 마케팅영웅-영업의 新' 행사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임직원들은 '새로울 신(新)'과 바람개비를 주제로 한 '영업의 新바람, 조직의 信바람, 실력의 神바람'이라는 테마 아래 양행의 마케팅 우수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했다.

특히 하반기 계좌이동제 시행으로 저비용예금의 지각변동과 고객유치 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협력과 혁신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다짐했다.

또 TV 홈쇼핑의 판매화법을 방카슈랑스 판매에 응용한 사례와 하나·외환은행의 협업을 통한 통합 시너지 극대화 사례, 국내 거주 미얀마 외국인근로자 유치사례 등 기존 은행의 영업 틀을 깬 영업사례들이 발표됐다.

이밖에 김정태 회장이 자신의 경영철학을 임직원들과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김 회장은 사전 준비 없이 즉석에서 직원들이 묻는 질문에 답하는 토크콘서트를 통해 영업비법을 들려주고 직원들의 고민도 상담했다.

그는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영업방식 차이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를 한 직원이 묻자 "서로 다른 것은 그대로 인정하면 된다"며 "서로의 장점이 무엇인지 알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또 "하나-외환은행이 통합을 통해 강력한 시너지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아란기자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왼쪽 두번째)이 직원들의 즉석 질문에 답하며 영업노하우를 전하고 있다. /하나금융 제공

동부건설, 극동건설 유찰에도 매각 순조

회생계획안 인가·매각 주관사 선정 등 일사천리
그룹 계열사 지분 등 자산프리미엄 1000억 달해

쌍용건설 이후에 건설사 인수·합병(M&A) 중 최대어로 꼽히는 동부건설이 최근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를 계기로 매각주관사까지 선정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1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동부건설 매각주관사 선정 프레젠테이션에서 NH투자증권 컨소시엄이 최종 발탁됐다.

이날 프레젠테이션에는 안진회계법인을 제외한 4대 회계법인이 모두 참여하는 등 동부건설의 관심이 높았다.

매각주관사로 선정된 NH투자증권은 삼정KPMG과 공동으로 이달 말까지 인수자 모색과 내부 실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NH투자증권은 다음달 중순 매각공고를 내고 9, 10월에는 예비및 본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11월에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연내에 계약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동부건설은 지난 3일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인가 받았다. 이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 이후 약 6개월 만으로 앞서 쌍용건설(7개월)보다 이른 법원의 결정이다.

이에 관련 업계에서는 동부건설의 높은 잠재력이 매각작업에 힘을 불어넣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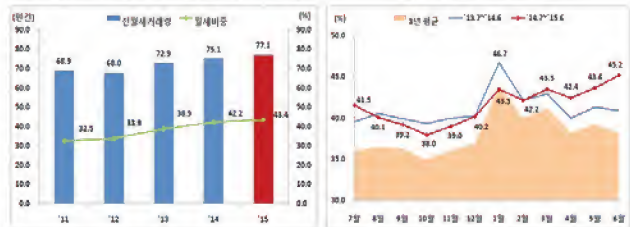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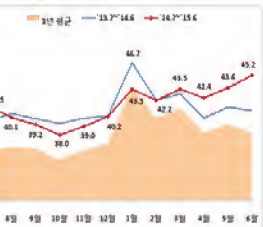
동부건설의 장점으로는 시공순위 25위로 하도급협력체가 1300여개에 달하는 등 다양한 공사 경험이 꼽힌다. 또 자체주택 브랜드인 '센트레빌'을 갖추고 있어, 최근 호황인 주택시장에서도 강점을 보이고 있다.

재정상황도 타 M&A업체보다 안정적이다.

삼정KPMG가 앞서 실시한 결과 지난 1월 기준 동부건설의 총자산은 총부채보다 500억원가량 더 많은 6913억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보유 중인 우량계열사인 동부하이텍 지분 10.17%(452만8809주)과 동부익스프레스에 대한 후순위 채권 500억원 등 자산 프리미엄만 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IB업계 관계자는 "극동건설의 유찰에도 불구하고 동부건설의 매각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는 안정적인 재정상황과 주택 브랜드 가치 등 매물의 장점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인수자와 매각자 간 가격협상이 최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추후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형석기자 khs84041@metroseoul.co.kr

상반기 전·월세 거래량 77만 건

전년동기比 2.7% 늘어

상반기 전·월세 거래량이 전년 동기보다 2.7%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전·월세 거래량이 77만1332건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작년 상반기 75만1328건보다 2.7% 늘어난 수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50만8467건, 지방 26만2865건으로 전년보다 각각 2.4%와 3.1%가 증가했다.

수도권 중에서는 서울의 전·월세 거래량이 25만6380건으로 5.3% 늘었고, 특히 강남3구가 4만7931건으로 11.7% 뛰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전·월세가 34만8901건, 아파트 외 주택이 42만2431건 거래됐다. 지난해 동기보다 각각 3.0%, 2.4% 증가했다.

계약 유형별로는 전세가 43만6711건, 월세가 33만4621건으로 집계됐다. 전세가 지난해보다 0.6% 늘어나는 동안 월세는 5.5%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전·월세 거래 가운데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3.4%로 지난해(42.2%)보다 1.2%포인트 상승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월세 시장의 중심이 옮겨가는 추세가 반영된 결과다.

6월 전국 전·월세 거래량은 12만5674건으로 파악됐다. 전월보다는 8.0%, 전년 동월보다는 12.0% 증가했다.

수도권이 8만3712건, 지방이 4만1962건이다. 전월에 견줘서는 6.4%와 11.2%, 작년과 비교해서는 9.6%, 17.1%씩 늘어났다.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5만5550건으로 전달보다 7.5%, 지난해보다 12.0% 증가했다. 아파트 외 주택은 전월과 전년보다 각각 8.4%, 12.0% 많아진 7만124건이 거래됐다.

이로써 6월 거래량 중 월세 비중은 45.2%를 기록, 전월 대비 1.6%포인트, 전년 동월 대비 4.3%포인트 높아졌다.

전국 주요 아파트 단지의 순수전세 실거래가격은 큰 변동이 없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 41.98㎡가 5월에 이어 6월에도 1억1000만원을 유지했고, 서초구반포동의AID차관아파트 72.51㎡도 3억5000만원으로 같았다.

경기도 수원 영통 황골마을 주공 59.99㎡ 역시 전달과 같은 1억9000만원에 계약서를 적었고, 용인 새터마을 죽전힐스테이트 85㎡는 3억5000만원에서 3억4000만원으로 떨어졌다.

전·월세 실거래가에 대한 세부정보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홈페이지(rt.molit.go.kr) 또는 한국감정원 부동산가격정보 앱(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선옥기자 pso9820@

GS건설, '자이 더 익스프레스' 3만 명 북새통 지난 10일 모델하우스를 오픈한 '자이 더 익스프레스' 모델하우스에 주말까지 3일간 3만 여 명이 다녀갔다. 자이더익스프레스는 GS건설이 경기도 평택 동삭2지구에 미니신도시급으로 조성하는 아파트다. 자이 더 익스프레스 모델하우스에 입장하기 위해 방문객들이 줄을 서고 있다. /GS건설 제공

생보재단, 11번째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대구 북구서 착공식 개최
590.75㎡, 지상 3층 규모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10일 오후 2시 대구시 북구 산격동 대구북구생명보험어린이집 건립부지에서 11번째 국공립어린이집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유석쟁 생보재단 전무, 정원재 대구시 북구 부구청장, 권은희 국회의원, 하병문 대구시 북구의회 의장과 기타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생보재단이 건립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인 대구북구생명보험어린이집(11호점)은 590.75㎡, 지상 3층 규모로 74명을 보육할 수 있다. 내년 초 개원이 목표다.

생보재단은 지난 2012년부터 저출산 해소 및 보육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자치단체에서 제공한 토지에 어린이집을 건립하고 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하는 '민·관 협력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서울, 경기, 인천 및 전남 지역에 10개의 어린이집을 건립, 올해 대구광역시와 경북 칠곡군에 어린이집 2개를 추가로 건립할 예정이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10일 대구시 북구 산격동에서 가진 생명보험어린이집 착공식에서 시삽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수환 생명의전화 이사, 최광교 시의원, 최길영 시의원, 권은희 국회의원, 유석쟁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전무, 정원재 대구 북구 부구청장, 김상혁 부의장, 차대식 구의원, 이영재 구의원.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제공

생명보험어린이집은 자작나무와 같은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고 아이들이 햇살을 받을 수 있도록 큰 창을 활용해 친자연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더불어 정부가 정한 보육시설면적 기준(1인당 4.29)에 비해 약 2배가량 넓은 공간을 마련했다. 또 어린이 안전을 위해 벽이나 기둥 모서리를 둥글게 설계하는 등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유석쟁 생보재단 전무는 "생명존중, 생명사랑이라는 생명보험업의 가치가 담긴 어린이집을 통해 어린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보육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생보재단은 2008년부터 삼성, 교보, 한화 등 19개 생보사들이 공동으로 사회공헌기금을 출연해 설립한 공익재단으로 저출산 해소와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건립, 지자체에 기부채납해오고 있다. /김보배기자 bobae@

2분기 실적 기대 이하… 대표 항공株 '주춤'

대한항공·아시아나 메르스 여파 일시 반영

하반기 호실적 기대 투자의견 '매수' 유지

국내 대표 항공주가 2분기 실적 악화 예상에 따라 주춤하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주가는 최근 그리스 사태 등에 국제 유가가 급락하면서 깜짝 반등했으나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가 2분기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이란 전망에 다시 약세로 돌아섰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0일 대한항공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50원(0.13%) 오른 3만975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지난 7일 이후 2거래일 연속 3%대, 5%대 하락세이던 것이 소폭 반등으로 돌아섰다. 아시아나항공은 10일 종가기준 전일보다 270원(3.87%) 내린 6700원을 기록했다. 역시 7일 이후 주춤세다.

이들 두 기업의 주가는 지난 6월 중 나란히 연저점을 찍었다. 대한항공은 지난 6월16일 장중 한때 3만4800원까지 떨어졌고, 아시아나항공도 6월15일 장중 한때 5570원까지 내려갔다. 메르스 공포가 여객 이용객의 발목을 붙잡았기 때문.

메르스가 소강상태에 접어든 이달 들어서는 이들 주가도 회복세를 보였다. 여기에 '국제 유가 급락' 소식이 더해진 지난 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전일 대비 각각 5.70% 오른 4만3550원, 13.95% 오른 7190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주가는 2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밑돌 것이란 전망과 함께 다시 약세로 돌아섰다.

교보증권에 따르면 인천공항의 6월 국제여객 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 11.6%나 줄었다.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이 5.8%, 아시아나항공이 19.6% 감소했다.

교보증권은 우선 대한항공의 2분기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1.2% 오른 2조9000억원, 영업이익 흑자 전환한 410억원으로 예상했다. 아시아나항공의 2분기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1.1% 줄어든 1조4000억원, 영업이익은 245.6% 오른 100억원으로 전망했다.

정유석 교보증권 연구원은 "지난 4~6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국내여객 이용객, 국제여객 이용객, 국제화물량은 모두 전년보다 증가했다"면서도 "하지만 실적은 메르스 여파로 시장 기대치를 하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2분기 국제유가는 배럴당 59 달러 수준으로 원가 절감을 기대하기 충분했으나 메르스가 지난달 여객 수요를 급감시키면서 실적 개선폭을 낮췄다는 지적이다.

정 연구원은 "현재 메르스 신규 환자 발생 속도가 현저히 줄어 여객 수요 회복이 기대되는 상황"이라며 "이달 들어 국제 유가가 배럴당 50 달러 초반 수준까지 하락했고, 3분기가 여객 성수기인 점을 감안하면 실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증권가에선 이들 기업의 주가 하락이 기회라면서 투자의견을 '매수'로 유지하고 있다.

박광래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2분기 제트유가가 전년동기 대비 37.9% 하락한 점은 긍정적"이라며 "그러나 운임 하락, 메르스 영향, 유류 헤지 손실 비용 등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기존 추정치에 미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연구원은 대한항공의 목표주가를 4만9000원으로 제시하면서 "최근 메르스가 진정세에 접어들었고 그리스 사태로 유가가 하락 반전한데다 국제여객 수송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어 하반기 호실적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정유석 교보증권 연구원은 아시아나항공의 목표가를 1만1000원으로 유지하고 "여객 수요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며 "저유가 기조가 계속되면 아시아나항공의 현금흐름과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선순환 구조로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김보배기자 bobae@metroseoul.co.kr

한화생명, 2015년 하반기 경영전략회의 한화생명이 11일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연수원에서 '2015년 하반기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 김연배 한화생명 부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한화생명 제공

KDB대우證 '최대 연 9.4% 수익 추구' ELS 판매

450억 규모 총 9종 공모

KDB대우증권이 최대 연 9.40% 수익률을 추구하는 ELS를 포함, 총 9종을 450억원 규모로 판매한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제14324회 HSCEI 원금 95%보장형 넉아웃 부스터(Booster)' ELS 상품 만기는 1년이며 기초자산은 HSCEI이다. 원금의 95%를 보장하면서 기초자산이 120%를 초과상승한 적이 없다면 기초자산의 상승률에 따라 최대 27.50%까지 초과 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 또한 기초자산의 가격이 120%를 초과 상승한 적이 있다면 만기 전이라도 원금의 102% 수익을 지급한다.

이 상품은 13일부터 15일 오후 1시까지 최소 100만원부터 100만원 단위로 청약이 가능하다.

'제14310회 HSCEI-EuroStoxx50 하향계단식 조기상환형 ELS'는 첫 번째 조기상환 배리어를 85%로 설정함으로써 조기상환 가능성을 높였다. 만기는 3년이며 6개월마다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각 최초기준가격의 85%(6·12·18·24개월), 80%(30개월), 75%(36개월) 이상인 경우 연 6.20% 수익을 제공한다. 조기상환되지 않은 경우에도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투자 기간 중 최초기준가격의 5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다면 만기에 연 6.20%의 수익을 지급한다.

이밖에 KOSPI200, HSCEI, EuroStoxx50지수와 S&P5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다양한 ELS 상품도 함께 판매한다. 이 중 HSCEI, EuroStoxx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만기 3년에 최대 연 9.40% 수익률의 조기상환형 상품도 함께 판매한다.

이번 상품들은 오는 14일 오후 1시까지 최소 100만원부터 100만원 단위로 청약이 가능하다.

/김보배기자 bobae@

태풍 영향에 장마 테마株 기지개 켜나

위닉스·신일산업 등 '찬홈' 북상에 상승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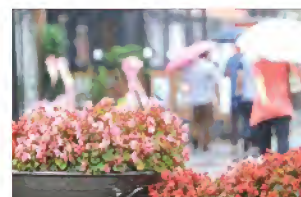
이번주 태풍 '찬홈'의 영향으로 전국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린다는 예보에 장마 테마주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0일 장마철 대표 종목인 제습기 제조업체 '위닉스'의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7.52% 오른 1만4300원에 마감했다. 이달 들어 약세를 면치 못했던 주가는 태풍 '찬홈'의 북상 소식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또 다른 제습기 제조업체인 '신일산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날 신일산업의 주가도 전일대비 1.31% 상승한 1545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해 유례없는 마른 장마로 제습기 판매량이 줄었으나, 올해는 해외 신규 고객 확보와 수출 확대로 실적 성장세가 예상된다.

윤혁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과 미국으로의 공기청정기와 제습기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올해 수출액은 전년(400억원) 대비 두배 증가한 800억원 이상으로 급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글로벌가전업체를 통해 중국에 공기청정기를 공급 중"이라면서 "지난해 150억원이었던 매출이 올해 2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관측했다.

제주시 연동 바오젠거리에 있는 화단 너머로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여름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롯데하이마트'도 장밋빛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유정현 대신증권 연구원은 "최근 여름 가전제품 판매가 증가하고, 신규 출점 감소로 비용도 함께 줄어들면서 올해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롯데하이마트의 2~3분기 실적의 주요 관건은 여름 가전제품 증가에 달려 있다"고 진단했다.

비료주 역시 전통적인 장마 테마주다.

농작물 병충해 예방을 위해 방역, 소독 작업에 필요한 농약과 비료 등의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관련 수혜주로 '남해화학', '경농' 등이 꼽힌다. 지난 10일 기준 남해화학(4.02%)과 경농(1.71%)의 주가도 상승세로 마감했다.

증시 전문가들은 "장마 테마주의 상승세가 뚜렷하지만 투자에는 조심해야 된다"면서 "실적 위주 종목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김민지기자 minji@

삼성-LG 스마트폰, 하반기 불안감 엄습

양사, 하반기 전략형 신제품 출시로 반전 준비
애플 차기 스마트폰·글로벌 위축 등 영향 우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산되면서 삼성전자와 LG전자 스마트폰 사업의 주름이 깊어지고 있다. 올해 1·2분기에 만족스러운 성적표를 손에 넣지 못한 양사는 하반기에 플래그십 모델을 앞세워 반전을 노리고 있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올 3분기에 각각 전략형 스마트폰을 출시하고 부진 탈출을 계획하고 있다. 삼성은 갤럭시 노트5를 LG전자는 G4 후속 등 플래그십 모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반기에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나란히 플래그십 모델을 시장에 내놨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S6·S6 엣지, LG전자의 G4 모두 출시 초기 해외 정보기술(IT) 매체 등으로부터 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호평만큼 소비자들의 지갑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증권업계는 올해 갤럭시 S6·S6 엣지가 약 4000만대, G4는 약 800만대가 팔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하반기 신제품에 역량을 쏟고 있다. 하지만 시장의 최대 변수는 애플의 차기작 아이폰 6S·6S 플러스(가칭)다.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애플에 번번이 밀리고 있는 가운데 9월께 출시 예정인 아이폰 6S·6S 플러스가 삼성전자와 LG전자 차세대 스마트폰 판매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 갤럭시S6엣지와 LG전자 G4. /삼성·LG전자 제공

아이폰 6S·6S플러스의 출시를 앞둔 애플은 역대 최대 초기 물량을 쏟아 낼 예정이다. 미국 경제지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애플은 8500만~9000만대의 사상 최대 초기물량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선보인 아이폰 6·6플러스 초기물량은 7000만~8000만대 수준이었다.

여기에 시장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것도 삼성전자와 LG전자에게는 부담이다. 그리스 위기·중국증시 폭락 등 시장의 위축 신호가 감지되는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도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등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애플에 비해 고정 구매고객 층이 상대적으로 약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경기 변동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을 겨냥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한층 업그레이드된 신제품을 내놓겠지만 애플의 아이폰 출시와 글로벌 경기 변수 등이 있어 판매 확대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한진기자 hjc@metroseoul.co.kr

삼성전자, 스마트에어컨 'Q9000' 보상판매

다음달 15일까지 진행
최대 60만원 할인 혜택

삼성전자는 인버터 컴프레서의 무상보증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한 것을 기념해 스마트에어컨 'Q 9000' 보상 판매전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보상 판매는 다음달 15일까지 진행된다.

삼성전자는 매장에서 초절전 스마트에어컨 'Q9000'을 구매하고 구형 에어컨을 반납하는 고객에게 모델에 따라 최대 60만원을 할인해준다.

반납하는 구형 에어컨의 브랜드나 스탠드형·벽걸이형 등의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 '초절전 김연아 스페셜' 제품 2종을 구매하는 삼성전자 멤버십 고객에게는 24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인버터 컴프레서가 탑재된 모델을 구매하면 10년간 무상보증 서비스를 해준다.

인버터 컴프레서가 탑재된 삼성 스마트에어컨 'Q9000'은 지난 2005년에 출시된 정속형 에어컨 대비 약 87%의 전기를 절감할 수 있어 전기세 부담을 줄여준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인버터 컴프레서 10년 무상보증을 기념해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형에서 최신형 에어컨으로 교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임은정기자 eunj71@

LG이노텍, 獨서 차량전장 부품 경쟁력 공인받아

LG이노텍(대표 이웅범)이 자동차 산업의 본고장인 독일에서 차량전장(電裝·전기전자장치) 부품 경쟁력을 공인받았다.

LG이노텍은 독일 콘티넨탈 오토모티브 그룹으로부터 최우수 협력사(Supplier of the Year 2014) 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국내 기업으로는 유일하다.

이 상은 콘티넨탈이 매년 전 세계 900여개 전략 협력사 중 가장 우수한 경쟁력을 보유한 업체에 준다. 품질·기술·납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올해는 14개 업체가 선정됐다.

콘티넨탈은 세계 3위 자동차 부품기업이다. 지난해 매출 340억유로(약 43조 5000억원)를 올렸고 임직원이 20만명이다. 완성차 업체들의 1차 협력사로 수천개 부품을 반제품 같은 모듈형태로 만들어 공급한다.

LG이노텍은 이번 수상으로 독일·미국·일본 등의 차량 부품 전문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LG이노텍은 앞서 지난 3일 독일 바벤하우젠에서 콘티넨탈 임직원 대상의 부품 전시회를 열었다. 차량용 모터, 센서, 텔레매틱스, LED 등 주요 차량 전장부품과 혁신기술을 선보였다. /양성운기자

벤처 창업의 사관학교로 자리매김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공모전 참여 기업 전년比 50%↑
SK 지원 효과 입증·전국적 인기

/SK그룹 제공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대전센터)가 벤처 창업의 사관학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대전센터는 12일 "대전시와 SK그룹이 함께 우수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을 발굴하는 '2015 드림벤처스타 2기 공모전'을 마감한 결과 267명의 벤처기업가와 예비창업자 등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드림벤처스타'는 대전센터가 지난해 10월 확대 출범하면서 '대박신화'를 조기에 만들기 위해 유망 벤처기업을 공모 선발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1기로 선발된 10개의 벤처기업은 10개월간 대전센터의 인큐베이팅을 거쳐 오는 8월 '졸업'을 앞두고 있다.

대전센터는 드림벤처스타 2기를 선발하기 위해 지난 6월까지 공모전을 실시했다. 지난해 공모에는 벤처기업가와 예비창업자 180명이 참여했는데, 올해는 지난해 보다 50%가 증가한 267명이 지원했다.

대전센터가 공모전에 참여한 예비창업자의 출신 지역을 분석한 결과 충청 대전지역 중심이었던 지난해와 달리 이번에는 전국에 폭 넓게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육성프로그램의 우수성과 1기 벤처의 성과가 알려지면서 대전센터에 대한 예비창업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아직까지 대전과 충청 등 대전센터 인근 거주자가 47.6% 가장 많았으나 서울(25.5%), 경기와 강원(17.6%), 영남과 호남(9.4%)의 비율이 증가했다. 지난해는 지원자 절반 이상(65.6%)이 충청권이었으나 올 해는 충청권이 50% 미만으로 떨어졌다.

대전센터는 내부심사를 거쳐 8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발된 업체에게는 10개월간 대전센터에 입주해 초기 자본금 2000만원 지급, 최고 2억원의 기술개발자금 지원등 다양하고 집중적인 창업 인큐베이팅이 제공된다. SK그룹의 인프라도 사용할 수 있다.

임종태 대전센터장은 "이번 공모전은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기업이 협력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당초 목적에 맞는 성과가 입증된 것"이라며 "1기 운영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2기에서는 더 큰 대박신화를 만들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한진기자 hjc@

삼성전자, 中서 스마트 TV 판매 연속 1위

삼성전자가 중국 시장에서 10분기 연속 스마트 TV 판매 1위에 올랐다.

12일 시장조사기관 gfk에 따르면, 중국 스마트 TV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2분기 20.8%의 점유율(주요 100대 도시, 매출액 기준)로 1위를 차지했다.

중국업체 하이센스는 14.1%로 2위, 스카이워스와 일본업체인 샤프가 각각 11.8%의 점유율로 공동 3위에 올랐다. 소니(8.6%), TCL(8.5%), 창홍(6.6%) 등이 뒤를 이었다.

삼성전자는 2013년 1분기 17.1%로 처음 1위에 오른 이후 10분기 연속으로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스마트 TV 시장은 2013년 7310만대, 지난해 8680만대에서 올해 9710만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전체 TV 판매에서 스마트 TV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올해 처음으로 40%를 넘길 것으로 전망됐다. /임은정기자

ARKO CHOICE 2015

36.5°의 웃음! 365일의 감동!

휴먼코메디
HumanComedy

2015·08·18 TUE···30 SUN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작 공동창작 연출 임도완 출연 이은주 홍승균 김다희 장성원 이호철 김다혜 연주 김요찬 조명디자인 이상근
음악 김요찬 사진 김솔 그래픽디자인 성현정 프로듀서 윤진희 홍보마케팅 바나나문 프로젝트

공동주최 공연예술센터, 사다리움직임연구소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관람료 R석 30,000석/ S석 20,000원 런닝타임 105분
•평일 8시/ 토요일 3시·7시/ 일요일 3시/ 26일 3시 공연 있음/ 월 쉼•

문의·예약 02-764-7462
예 매 공연예술센터 02-3668-0007
인터파크 1544-1555

가전시장 '파격 행보'… 실적부진 탈출 안간힘

삼성전자
TV·에어컨 보상판매 진행
냉장고 구매 고객 선물도

LG전자
캐시백·사은품 증정 등
이벤트 내세워 전면전

국내 가전업계의 라이벌인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대내외적으로 힘든 환경을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삼성과 LG전자는 올 상반기 글로벌 경기 부진과 메르스 등의 여파로 1·2분기 실적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양사 모두 스마트폰 사업에 이어 TV와 에어컨 등의 생활가전 시장까지 얼어붙으면서 실적부진을 벗어날 출구를 찾지 못하는 모양새다. 때문에 양사는 파격적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돌파구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LG전자는 이달 말까지 65형 슈퍼 울트라HD TV(65UF9500, 65UF8600)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50만원 캐시백(혹은 상품권)과 43형 울트라HD TV(43UF6700)를 사은품으로 증정 행사를 진행한다.

우선 삼성과 LG전자는 침체된 TV 시장 활성화에 힘을 싣고 있다.

12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8월 말까지 가전부문의 핵심인 TV, 냉장고에 대해 다양한 이벤트를 연다. TV에선 '삼성전자 S 골드러시, TV 9년 연속 세계 1위 기념 보상 판매' 행사를 진행한다. 55인치 이상 SUHD TV(10개 모델)나 UHD TV구매시 보유 중인 LCD·PDP·LED·프로젝션 TV 등 구형 평판TV를 반납하면 30만원을 추가 할인해준다. 삼성전자 대리점 등 전속 판매점에서는 현금처럼 쓸 수 있는 30만 S포인트도 제공한다.

LG전자는 파격 이벤트를 전면에 내세웠다. LG전자도 이달 말까지 65인치 슈퍼 울트라HD TV(65UF9500, 65UF8600)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50만원 상당의 캐시백(또는 상품권)과 43인치 울트라HD TV(43UF6700)를 사은품으로 증정한다. 사은품을 울트라HD TV 대신 무게 980g의 초경량 노트북 '그램 14'로 선택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삼성전자는 8월 말까지 슈퍼 프리미엄 냉장고 '셰프컬렉션' 구매 고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는 '셰프컬렉션, 건강 집밥을 위한 특별한 선물' 이벤트와 다음 달 15일까지 스마트에어컨 'Q9000' 보상 판매전을 진행한다.

LG전자는 프리미엄 빌트인 전기레인지 신제품 출시를 기념해 이달 말까지 전국 베스트샵에서 전기레인지 신제품 구매 고객에게 결제금액의 10%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그러나 증권가에서는 삼성·LG전자가 프로모션을 통한 실적 개선은 미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강호 대신증권 연구원은 "LG전자는 전략 스마트폰 G4 판매 기대감의 소멸과 TV 수요 부진으로 전체 매출과 이익 증가를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송명섭 하이투자증권 기업분석팀 부장은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부문을 제외하고 실적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디스플레이 부문은 1분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이고, TV 쪽은 환율 문제 등으로 기대치에 못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현대차 'H-마케팅 마스터클래스' 성료

마케터 육성 프로그램 선봬

현대자동차는 대학생들에게 마케팅 실무 경험을 제공하는 'H-마케팅마스터클래스'를 마쳤다고 12일 밝혔다.

현대차는 대학생 8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8개월간 저명인사 강연, 현업 마케터의 멘토링 등 마케팅 실무를 접할 수 있는 '마케터 육성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번 참가자들은 국내 대표 광고인 박웅현, 조수용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등 저명인사의 강연, 현대차 현업 마케터와의 멘토링을 통해 마케팅 이론·현장에서 벌어지는 활동을 들으며 실전 감각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또 올해 2월에는 참가자 전원이 북경과 상해에서 개최된 글로벌 워크샵에 참석해 마케팅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해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특히 7월11일에는 현대차 본사에서 팀 별로 이번 프로그램 기간 수행해온 현대차 마케팅 관련 과제를 발표하도록 해 우수팀을 시상했다.

현대차 측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마케팅의 꿈을 가진 학생들이 자신의 꿈에 한 발 다가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대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글로벌 최고 마케팅 전문가 육성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는 대학생 뿐 아니라 어린이를 위해 자사 브랜드와 차명을 활용한 어린이용 자동차 3D 애니메이션을 공동 개발 중이다. 고등학생 모형자동차 챔피언십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세대별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다.

/정용기기자

한국토요타, 하이브리드 라인업 '펀 마케팅' 실시

SNS서 바이럴 영상 방영 예정

토요타 코리아는 재미와 흥미를 더한 '토요타 스마트 하이브리드 바이럴영상'을 제작해 토요타 페이스북·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 방영한다고 12일 밝혔다.

토요타가 방영하는 영상으로는 '배달맨', '클럽', '복어', '경찰&도둑 잠복편', '경찰&도둑 추격편' 등이 있다.

토요타 하이브리드 펀 마케팅 '배달맨' 편. /토요타 제공

'토요타 스마트 하이브리드 바이럴 영상'은 친환경·정숙성·퍼포먼스·고연비·드라이빙의 즐거움 등을 재미있고 쉽게 직접적인 메시지로 전달하고자 한 것이 특징이라고 토요타는 전했다.

현재 방영되고 있는 '배달맨' 편은 도심 속 앞차의 배기가스에 힘들어 하던 '배달맨'이 차선을 바꿔 캠리 하이브리드 뒤를 따라가자 맑아진 공기에 행복해하며 도심을 벗어나 결국 시골까지 따라 간다는 내용이다.

곧 공개될 '클럽' 편은 프리우스를 타고 클럽에 가는 세 친구의 이야기다.

'복어'편은 에코-노말-파워모드에 반응하는 '복어'의 모습이 담겼다.

'경찰&도둑 잠복편', '경찰&도둑 추격편'은 캠리 하이브리드의 퍼포먼스와 정숙성을 담은 이야기가 전개될 예정이다.

토요타 측은 "어렵게 느껴졌던 하이브리드의 특징을 공감할 수 있는 주제로 쉽게 이야기해 보고자 했다"며 기획의도를 설명했다.

/정용기기자 yonggi@

'해피빈' 10주년, 1200만명 510억원 기부

네이버는 2005년 7월 출시한 국내 최초의 온라인 기부 플랫폼 해피빈(대표 최인혁)이 전날 10주년을 맞았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0년 간 약 1200만 명의 기부자가 해피빈을 통해 510억 원이 넘는 금액을 5500여 단체에 기부했다고 사측은 전했다.

해피빈은 네이버 블로그나 카페 등을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100원의 가치를 가지는 가상 화폐 '콩'을 지급해왔다.

사용자들이 받는 '콩'은 실제로 네이버와 기업들의 후원금으로, 공익단체 모금함에 기부되면 해피빈이 기부금을 단체에 전달한다.

사용자가 직접 기부금을 결제하는 '충전콩'도 있다.

해피빈은 보다 많은 공익 단체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후원자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공익 콘텐츠 참여 플랫폼'으로 서비스를 키워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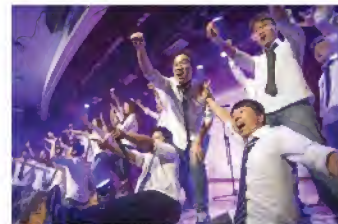
/임은정기자

구자엽 "'LS전선 Way' 성과로 연결할 것"

LS전선 Way 페스티벌 개최
비전 실천 독려 위해 기획돼

LS전선은 지난 10일 안양 LS타워에서 임직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LS전선 Way 페스티벌'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영업과 생산, 연구개발(R&D) 등 전 부문의 임직원은 팀을 구성해 다양한 공연과 UCC 등을 통해 비전과 핵심가치를 표현했다. 사업장 별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11개 팀이 뮤지컬과 연극, 마술, 합창, 인형극, 사물놀이, 난타 등으로 치열한 경연을 펼쳐 구미사업장 품질부문의 뮤지컬 'LS전선의 꿈'이 대상을 차지하는 등 참가 팀에게 총 2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이번 행사는 지난 1월 선포한 'LS전선 Way'의 실천을 독려하기 위한 일환으로 기획됐다. 'LS전선 Way'는 비전인 '선으로 하나되는 세상'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 원칙인 고객 최우선, 전체의 이익을 위한 존중과 협력, 원칙과 기본 준수, 전문성으로 이뤄져 있다.

지난 10일 안양타워에서 열린 'LS전선 Way 페스티벌'에서 임직원들이 'LS전선 희망가' 합창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LS전선 제공

구자엽 LS전선 회장은 "'LS전선 Way'가 공허한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실행과 성과로 연결되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고 "'LS전선 Way'가 업무 수행의 기준이 되고, 말과 행동에 내재화 된다면 LS전선만의 자랑스런 문화, 가치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은정기자 eunj71@

올드카의 무한 변신… 화려한 튜닝의 향연

르포 '2015 서울오토살롱' 둘러보니

80개사 540개 부스서 다양한 기술 뽐내
디자인·기술력·경제성까지 3박자'쿵짝'

한국 자동차 튜닝 산업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2015 서울오토살롱' 전시회를 지난 10일 방문했다. 인산인해는 아니었지만 자동차 매니아들은 행사 시작 전부터 모여 전날 개막한 전시회의 다양한 자동차 튜닝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2015 서울오토살롱'은 12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C전시관에서 열렸다.

입구를 넘어서자 다양한 색상의 카 스킨 필름을 보유한 한국쓰리엠(3M)의 부스가 보였다. 독특한 색감의 카 스킨이 포르쉐, 쉐보레 차량에 랩핑돼 있었다. 3M 측은 "운전자들은 다양한 색상의 카스킨 필름으로 자유롭게 색을 바꿀 수 있다"며 "이 필름들은 외부 충격이나 흠집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 휠(바퀴) 제작사인 핸즈코퍼레이션 부스로 향했다. 자동차 휠과 포즈를 취하고 있는 레이싱모델이 보였다. 포토존 뒤편에 위치한 부스로 들어가니 다양한 크기와 각기 다른 소재로 제작된 휠들이 벽에 걸려있었다.

신경덕 핸즈코퍼레이션 차장은 "마그네슘으로 제작된 휠은 기존 알루미늄 휠 대비 20~30% 무게가 줄었다"며 "동시에 알루미늄 휠과 동등한 강성을 갖췄다"고 말했다. 이 회사 제품인 마그네슘 휠(MG0400)과 현대자동차 i40에 장착되는 알루미늄 휠을 번갈아 들어봤다. 마그네슘 휠의 크기가 알루미늄 휠 보다 더 컸는데도 2~3kg정도 가벼웠다. MG0400의 무게는 8.1kg다.

대체 연료사업자인 로는 LPG 직분사 시스템으로 연료장치 튜닝을 한 현대차 제네시스와 아슬란을 전시했다. LPG 직분사 시스템은 기존 가솔린 직분사 엔진 차량에 인젝터와 고압펌프를 장착해 LPG와 가솔린을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미정 로 영업팀 사원은 "운전자가 LPG와 가솔린 중 선택해 운행할 수 있다. 자동모드를 선택하면 LPG로 시동과 주행이 이뤄지고 LPG가 모두 소진되면 가솔린으로 전환된다"며 "수동모드는 운전자가 가솔린으로 주행하고자 할 때 선택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2015 서울오토살롱'에는 올드카 튜닝·리스토어 특별관을 비롯해 머슬카 특별관, 카오디오 특별관, 슈퍼카 튜닝관 등도 마련됐다.

국내·외 80개사 540개 부스에서 튜닝으로 변신한 개성 있는 자동차를 관람객에게 선보였다.

/정용기기자 yonggi@metroseoul.co.kr

기사제보=02)721-9832

올레tv, 스타워즈 페스티발 kt위즈 치어리더들이 11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수원kt위즈파크에서 스타워즈 인기 캐릭터들을 소개하고 있다. 올레tv는 국내 최초로 스타워즈 전편 VoD 출시를 기념해 11일과 12일 양일 간 다스베이더 군단 코스튬 퍼레이드와 팝업스토어 운영, 스타워즈 특별영상 관람 등을 진행했다. /KT 제공

SKT, 소물인터넷 시범사업 본격 추진

'로라 얼라이언스' 가입

SK텔레콤(대표이사 장동현)은 '로라 얼라이언스'에 가입하고, 소물인터넷(Internet of Small Things)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로라 얼라이언스는 '소물'들을 연결하는 IoT 전용 통신 기술인 '저전력 장거리 통신 기술(LPWAN)'과 해당 기술이 적용된 제품 개발을 위해 조직된 다국적 연합체다.

SK텔레콤은 아시아 이동통신 사업자 최초로 로라 얼라이언스에 가입해 기술 개발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향후 해당 기술을 도입한 글로벌 통신 사업자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서비스와 제품 공동 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저전력 장거리 통신 기술'은 통신 거리가 수십km로 넓고, 전력 소모가 적어 단말 배터리 수명이 수년간 유지되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향후 SK텔레콤은 ▲스마트홈 연동 계량기 개발 ▲자전거 관제 및 위치 추적 솔루션 ▲빅데이터를 통한 상권 분석 ▲스마트 가로등 관제 등에 로라 얼라이언스의 '저전력 장거리 통신 기술'을 적용해 연내 소물인터넷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얻은 노하우와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로라 얼라이언스에 지속 개진해 전 세계 소물인터넷 기술 진화·생태계 구축을 선도해나갈 것이라고 SK텔레콤은 밝혔다.

/임은정기자 eunj71@

SKT '2014 연차보고서' 발간

SK텔레콤(대표이사 장동현)은 지난해 재무적·비재무적 성과와 미래 전망 등 종합적 기업가치를 담은 '2014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해 발간한 '2013 연차보고서'부터 '지속가능성보고서'와 '연차보고서'를 통합해서 발간하고 있다.

'2014 연차보고서'는 글로벌 통합 보고 트렌드에 따라 사회·환경적 성과와 경제적 가치를 연계하고, 사업전략·성과·전망을 통합적 관점에서 전달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명확한 미래 기업가치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사측은 설명했다.

SK텔레콤은 보고서에서 지난 한 해 동안의 ▲혁신적 상품·서비스 개발 ▲LTE리더십 ▲신규 사업 등 중장기 성장기반 공고화 ▲'창조경제' 혁신을 통한 사회적 가치 추구 ▲고객가치 혁신 ▲동반성장 ▲인재육성 ▲기후변화대응 등 성과를 담았다.

이용환 SK텔레콤 재무관리실장은 "'2014 연차보고서'는 경영역량, 경제적 가치, 사회적 책임의 연계를 통해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약속을 담았다"며 "앞으로도 고객으로부터 꾸준히 사랑받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은정기자

이상철 LGU+ 부회장, 포스트 LTE 방향성 제시

'MWC 상하이 2015'서 기조연설

이상철(사진) LG유플러스 부회장이 오는 15일부터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되는 'MWC 상하이 2015'에서 한국의 ICT 위상을 높이고 포스트 LTE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LG유플러스는 이 부회장이 오는 16일 기조 연설에서 '5G로 가는 길(The Road to 5G)'을 주제로 포스트 LTE 시대에 대한 방향성으로 '미센트릭(Me-Centric)'을 제안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부회장은 컴퓨터와 네트워크의 고도화로 인해 포스트 LTE 시대는 시장 변천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며 전제하고 "30년동안 컴퓨팅 파워는 100만 배 넘게 커졌다"며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사라지면서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는 미센트릭 사회가 됐다"고 진단한다.

이어 "과거 소수의 백만장자만이 누리던 수많은 특권을 이제 5G를 기반으로 일반 대중들의 몫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5G가 반드시 수반돼야 하며 이는 개개인이 중심이 되는 미센트릭 시대의 초석이 돼 우리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만들 것"이라고 이 부회장은 전망한다.

LG유플러스는 행사 기간 중 세계 최초 VoLTE 통신사업자간 연동 및 상용화로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로부터 공로상을 받으며 관련 노하우를 글로벌 통신사업자들과 공유한다고 전했다.

이 부회장은 각국의 주요 정부 관계자 및 글로벌 기업 CEO와 잇따라 만나며 IT 외교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미래 사업 방향을 협의할 예정이다.

/임은정기자

면세점 춘추전국시대… 이제부터 진검승부

호텔신라, 롯데 독주 막아… 현대산업개발·한화갤러리아 다크호스 급부상
롯데·신세계·SK네트웍스, 상생 전략 弱·오너공백 등으로 유치 탈락 고배

2000년 이후 15년 만에 재개된 시내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호텔롯데의 독주가 깨지며 면세점 유통업계의 춘추전국시대가 열렸다. 주인공은 호텔신라와 현대산업개발의 합작법인 HDC신라면세점,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면세점, 하나투어 합작법인 SM면세점, 제주관광공사다.

이들 4개사는 지난 10일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세관 수출입통관청사 4층 대강당에서 열린 서울지역 3곳과 제주지역 1곳 면세점 신규사업자 심사결과에서 최종 낙찰됐다.

이번 결과에서 가장 눈에 띈 기업은 HDC신라다. 양사의 오너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은 대기업 오너 가운데 유일하게 공식석상에 행보를 같이 하며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했다.

특히 이부진 사장은 지난달말 HDC신라면세점 최고 경영진과 중국 주요 여행사를 방문해 중국인 관광객(요우커) 유치에 나선 데 이어 이달 2일 서울 용산구 아이파크몰에서 열린 관광산업 발전 비전 선포식 간담회에 참석하는 등 적극적인 리더십을 보였다. 또한 면세점 심사가 시작된 9일에는 인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을 방문해 프레젠테이션(PT,사업계획) 발표자를 격려했다.

호텔신라는 서울 시내 면세점 점유율 31%로 호텔롯데 60.5%에 이어 두번째로 점유율이 높았지만 오너의 면세점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리더십이 한몫하며 독과점 논란을 벗어났다.

백화점으로서 존재감이 미미했던 현대아이파크몰은 면세점 선정으로 집객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박상환 하나투어 회장. 최갑열 제주관광공사 사장. /연합뉴스

기업	입지(위치/면적)	특징	약점
HDC신라 (호텔신라, 현대산업개발)	- 용산 아이파크몰 - 2만7400㎡(면세점)+3만7600㎡ (한류 공연장 · 관광홍보관 · 교통 인프라 · 주차장 등 조성)	- 세계 최대규모의 도심형 면세점 - 철도관광 연계 프로그램 개발 - 용산전자상가와 동반 성장	- 독과점 논란 - 합작법인 운영 충돌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 63빌딩 36472㎡ 면세점 10072㎡ + 26400㎡ 쇼핑 · 엔터테인먼트 등 컬쳐 쇼핑플레이스 조성	- 한강 · 국회의사당 · 노량진 수산시장 있는 관광 루트 개발	- 여의도 관광지 인식 부족 - 집객력 높일 상품기획 전략(MD) 부족
SM면세점 (하나투어)	- 종로구 인사동 하나투어 본사 9977㎡ 규모	- 한류 키워드 문화 · 관광면세점	- 규모의 경제 승부 어려워 관광버스 7대 수용 등 주차문제
제주관광공사	-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롯데호텔 4056㎡. (면세점 2634㎡+사무실)	- 면세점 수익금 전액 기부	- 중소 · 중견기업 몫 차지 논란

HDC신라는 면세점 주변 전자상가 일대를 일본 최대 전자상가인 도쿄의 아키하바라처럼 발전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여기에 용산역을 거점으로 지방까지 철도로 연결한 지방 관광 패키지 여행 상품을 확대해 지역 경제를 발전시킬 방침이어서 미래의 낙수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화갤러리아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뚝심 경영이 통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화 측은 여의도가 관광지로서 관광객을 끌어모을 상품기획전략(MD)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깨고 황금 티켓을 거머쥐었다. 제주공항면세점에 이어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 진출에 성공하며 면세 업계의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다.

한화갤러리아는 명동과 동대문 등 강북지역에 치우친 외국인 관광지를 한강유람선 투어, 노량진 수산시장 체험, 한류스타 초청 콘서트, 여의도 벚꽃축제, 서울세계불꽃축제 등을 통해 서남부 상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하나투어는 관광산업 조성능력의 독보적인 부분을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보인다. 하나투어는 지난해 일본에 면세점을 낸 데 이어 올초 인천공항 9구역 면세점 운영자로 선정됐다. 하나투어는 면세점 관리 역량에서도 유리했다. 일본 후쿠오카에 '스타샵엔라인'이라는 해외법인을 세워 지난해 5월부터 소형 면세점을 운영했다. 사업시작 1년만에 월 10억원 정도 수익을 내는데 성공했다. 입지면에서는 외국인 관광객 포화 상태인 명동에서 가까워 상권 확대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제주관광공사는 면세점 수익 전액 기부라는 초강수 전략이 통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공사 측은 수익을 도민에게 전액 사용하는 제주형 면세사업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세부적으로는 ▲관광객 유치 마케팅 50% ▲관광인프라 구축 30% ▲지역사회 환원 10% ▲중소상권 육성 10% 지원 등이다.

이번 면세점 입찰에서 패배한 롯데·신세계·SK 등의 총수 일가는 분루를 삼켜야 했다.

국내 면세점 점유율 1위(60.5%)로 왕좌를 지켰던 호텔롯데는 롯데피트인 면세점 유치 실패로 독주 레이스에 제동이 걸렸다. 롯데는 독과점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그룹 모태인 명동 본점 명품관 전체를 면세점 후보지로 선정하는 초강수 전략을 뒀지만 탈락의 쓴 고배를 마셨다.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주차와 과장된 홍보 등이 이유로 보인다.

동대문 케레스타 빌딩을 신규 면세점 입지로 선정했던 SK네트웍스는 자체 보유 주차공간과 인근 주차장 확보 등 면세점 선정 막바지까지 역량을 모았지만 오너 경영 공백 등이 한계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0일 심사결과 발표장에서는 독과점 논란과 함께 선정 기업의 구체적인 항목별 점수가 공개되지 않으며 관세청의 애매한 심사기준이 지적됐다. 또 이날 서울 시내 면세점 입찰 발표 전 입찰 업체들의 주가가 큰 변동을 보이며 사전 정보 유출에 따른 주가조작 의혹이 일었다.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서 관련 정황을 확보해 통보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상길기자 sweatsk@metroseoul.co.kr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제2의 면세점 입찰 전쟁

하반기, 서울 3곳 등 특허 만료 면세점 후속 사업자 선정
롯데·SK네트웍스 등 탈락 업체들 입찰 재도전 사활 전망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서울 지역 신규 면세점 유치전에서 현대산업개발·호텔신라의 합작법인인 HDC신라면세점과 한화갤러리아가 사업권을 획득했다.

경쟁이 치열했던 만큼 이번 입찰 전에 고배를 마신 업체들이 올 연말 특허가 만료되는 서울 및 부산 시내면세점 입찰에 참여할 것이란 전망 속에 제2의 면세점 전쟁이 예고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5월 특허기간이 올해 말 만료되는 서울 3곳과 부산 1곳 등 시내면세점 4곳에 대한 후속사업자 선정을 위한 특허신청 공고를 했다.

이번에 특허신청이 공고된 면세점은 11월16일 특허가 만료되는 워커힐면세점과 12월22일 만료되는 롯데면세점 소공점, 12월31일 만료되는 롯데월드점, 12월15일 만료되는 부산 신세계면세점 등 총 4곳이다.

기존에는 10년 단위로 면세사업권이 자동 갱신됐지만 지난 2013년 관세법이 개정되면서 5년 단위의 공개입찰로 변경됐다. 특허신청은 9월25일까지다. 관세청은 11월 중 특허심사위원회를 거쳐 특허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쓰라린 패배를 맛본 현대백화점(현대DF)·신세계(신세계DF)·SK네트웍스(워커힐면세점)·호텔롯데(롯데면세점)·이랜드(이랜드면세점) 등은 하반기 면세점 입찰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면세점은 자칫 수십 년간 운영하던 면세점을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 신규 사업자들은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불리는 면세점 사업에 마지막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절박함에서다.

가장 의욕을 불태우고 있는 곳은 롯데와 SK네트웍스이다. 롯데는 이번 서울 시내면세점 전쟁에서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다는 시각이 많았다. 올 연말 만료되는 롯데 소공동 면세점, 월드타워점 등의 운영권 유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롯데 소공동 면세점은 연간 매출이 2조원대에 육박하는 국내 최대 면세점이고 월드타워점은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제2롯데월드몰에 입점해있다는 점에서 둘 다 포기할 수 없다.

SK네트웍스 역시 면세점 사업권 유지에 사활을 걸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옥중에서도 면세점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SK네트웍스가 서울 시내 면세점 입찰에서 고배를 마신 상황에서 기존 특허권은 절대로 잃을 수 없는 카드다. 이번 입찰에서 범 현대가인 현대산업개발에 밀린 현대백화점도 11월 면세점 재선정에 설욕을 다짐하고 있다. 현대는 면세점 사업 첫 진출을 노리고 있다. 면세점이 없는 이랜드 역시 재도전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는 특허권이 만료되는 부산 해운대 파라다이스면세점을 지키는 데 주력하면서도 신세계백화점 명동 본점의 입지적 강점을 내세워 서울 시내면세점의 특허권 재입찰에 나설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시내면세점 특허권 입찰에 떨어진 업체들이 전력을 가다듬고 추가 입찰을 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반기 면세점 사업권은 티켓 한 장마다 업체들이 모두 입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경쟁은 더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정은미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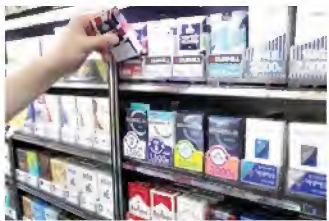
담배 세수 1조 2000억 늘어

판매량은 전년비 28% 감소

담뱃값 인상으로 올해 상반기 담배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감소했다. 반면 담배 세수는 1조2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담배 판매로 거둬들인 세금은 4조37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3조1600억원보다 1조2100억원 증가했다.

세수 증가 폭은 담뱃값 인상 여파에 소비가 줄면서 지난 1월 400억원에 그쳤다. 하지만 2월 1000억원, 3월 1300억원에서 4월 3300억원으로 급증하더니 5월 2700억원, 6월 3200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담배 반출량도 증가 추세다. 1월 34억 개비, 2월 36억 개비 수준이던 담배반출량은 3월 들어 49억 개비로 늘더니 4월 58억, 5월 54억, 6월에는 57억 개비로 상승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연초 금연을 결심했던 흡연자들이 다시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면서 판매량이 회복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당초 정부는 담배소비량이 연간 34%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지만 상반기 기준으로 살펴보면 실제적인 감소 효과는 28.3%에 그쳤다.

이 같은 추세대로 증가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담배로 인한 세금은 적어도 지난해보다 2조5000억원가량 더 걷힐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담뱃값 인상으로 흡연량을 줄였거나 끊었던 사람들이 다시 담배를 피울 경우 세금 증가세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 오광만 출자관리과장은 "담뱃세 인상과 담뱃갑 앞뒷면 경고그림 도입 같은 비가격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는 것을 전제로 흡연율 감소 효과를 예측했다"며 "경고 그림 도입 법안의 국회 통과가 늦어져 이에 따른 흡연율 감소 효과가 2017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담배 제조사가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 그림·문구로 채워야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안은 지난 5월 말 국회를 통과해 내년 12월부터 시행된다.

업계 관계자는 "7~8월은 담배 판매 비수기이기 때문에 가을이 되면 담배 판매량이 좀 더 늘어날 것"이라며 "올해 판매량은 20%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은미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적자 기록 스킨푸드, '노세일' 포기하나

3~7월 멤버십 데이 진행

'노세일'을 고집하던 스킨푸드(대표 조윤호)가 계속되는 실적 부진에 결국 브랜드숍 할인 경쟁에 뛰어들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스킨푸드는 전날인 11일까지 총 4일간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최대 50% 할인 행사를 열었다.

그간 신제품과 계절상품 특가전은 진행한 적은 있지만 전 품목을 대상으로 멤버십 세일은 연 것은 창사 이래 처음이다.

포스터 문구도 "이게 꿈인가요 첫 빅세일"이라고 달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경쟁 브랜드들의 대대적인 할인에도 가격에 대한 신뢰성을 강조하며 지난 2013년부터 '노세일 원칙'을 고수해 왔기 때문이다.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사실상 '노세일 브랜드'라는 정체성과 신념을 완전히 버린 것으로 업계는 전망했다.

스킨푸드의 이 같은 행보는 계속되는 실적 부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2004년 창사 이래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던 스킨푸드의 영업이익은 2010년 167억원을 정점으로 찍은 이후 2011년 153억원, 2012년 114억원, 2013년 32억원을 기록하며 매년 내리막을 걸었다. 결국 지난해 창사 이래 처음으로 52억원의 적자를 냈다. 매출 역시 2013년 1746억원에서 이듬해 1519억원으로 감소했다.

해외 시장에서도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스킨푸드 중국 법인은 지난해 매출 239억원을 기록해 전년동기대비 0.8% 감소했다. 당기순이익도 706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84% 줄어들었다.

비슷한 규모였던 네이처리퍼블릭과 토니모리는 적극적인 해외시장 공략과 차별적인 제품과 대대적인 행사로 꾸준히 소비자를 끌어모으며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대해 스킨푸드 관계자는 "이번 빅세일은 바캉스 시즌을 맞아 특별히 등급별 차등 없이 할인율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며 "멤버십 할인을 정기화할지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당분간은 매달 멤버십 데이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상장을 하거나 준비하는 경쟁사와 달리 뚜렷한 성장 동력이 없는 상황에서 세일을 통해 매출도 올리고 고객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0215@

'바캉스大展'… 이월상품 최대 60%할인

현대백화점

선글라스·슈즈·장신구 등 할인 행사·프로모션 진행

현대백화점은 본격적인 휴가 시즌을 맞아 대형 할인 행사와 다양한 프로모션을 연다고 12일 밝혔다.

무역센터점에서는 13~16일 지하 1층 대행사장에서 '바캉스 대전'을 진행한다. 선글라스·슈즈·장신구 등 총 52개 브랜드가 참여해 바캉스 관련 이월상품을 최대 60% 할인 판매한다.

압구정본점에서는 13~19일 '리조트 패션위크'를 마련했다. 여성·영캐주얼·아동·란제리·구두·핸드백 상품군에서 브랜드별로 시즌오프 및 추가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 13~16일 '란제리 종합전', 17~19일 '썸머 바캉스 상품전' 등 상품군별 대형행사도 준비했다. 여름 방학 시즌을 맞아 단체로 MT를 가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워터파크 MT' 이벤트도 진행한다.

현대백화점 'U멤버십' 회원이 현대백화점 페이스북 이벤트에 댓글로 친구를 10명 이상 남기면 팀당 최대 20명씩 총 200명에게 원마운트 워터파크 이용권을 증정한다.

"지친 수험생, 정관장 '아이패스 파워'가 응원합니다" KGC인삼공사(대표 김준기)의 정관장은 1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초복을 앞두고 '아이패스 파워' 출시 행사를 진행했다. 14일 분량의 아이패스 파워는 홍삼 원료에 체력 보강에 좋은 소재를 한 번에 섭취해 단기간 체력보충이 필요한 수험생에게 좋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KGC인삼공사 제공

소셜커머스 3사, 소비자 상담센터 설립

쿠팡·티몬·위메프 등 소셜커머스 3사가 소비자 상담센터를 공동 설립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KOLSA)는 지난 10일 소셜커머스 소비자 상담센터 개소식을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소식은 한국소비자원이 주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KOLSA가 후원했다. 소셜커머스 소비자 상담센터는 앞으로 소비자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핫라인을 구축, 영업일 3일 이내에 소비자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상담 전문 인력은 온라인쇼핑협회 내에 꾸려질 예정이며, 전용 상담번호도 마련될 방침이다.

/정은미기자 21cindiun@

바캉스 시즌 앞두고 보안용품 판매 급증

G마켓 '안심 휴가 프로젝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보안용품 판매가 급증했다.

12일 오픈마켓 G마켓이 이달 들어(1~9일까지) 창문잠금장치·안전바 판매량을 조사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72% 증가했다. 특히 디지털도어락 판매는 47% 늘었고, 자물쇠·열쇠 판매량은 1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G마켓은 종합 안심 솔루션 기업 에스원과 함께 '안심 휴가 프로젝트' 프로모션을 열고 무료 순찰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프로모션은 이달 21일까지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한 고객 중 총 1000명을 추첨해 제공한다. /21cindiun@

파리바게뜨, 이달의 제품 '쿨브레드' 선정

매달 13일 '브레드데이' 진행

SPC그룹(회장 허영인)이 운영하는 파리크라상의 파리바게뜨는 매달 13일 진행하는 '브레드데이'의 이달 제품으로 쿨브레드를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쿨브레드는 쿨커피크림브레드·슈크림도넛·메론크림빵·탱글탱글쿨슈크림빵·코르네파이·쿨데니쉬·쿨카스타드크림빵·쿨초코크림빵 등 총 8종이다. 쿨브레드는 빵을 따뜻하게 먹어야 한다는 통념에서 벗어난 새개념 빵이다.

13일 '브레드데이'에 해피포인트를 이용하는 전 고객은 파리바게뜨에서 쿨브레드 구매 시 20% 현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1cindiun@

다섯 컬러 '카멜 컬러 네온 에디션' 출시

JTI코리아(대표 스티브 다이어)는 글로벌 브랜드 카멜(Camel)의 한정판 제품인 '카멜 컬러 네온 에디션'을 19일 출시했다. 가격은 4000원이다.

카멜 컬러 네온 에디션은 지난 2월 출시한 '카멜 컬러 에디션'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출시되는 카멜 한정판이다. /21cindiun@

화산암반수 '백두산 하늘샘' 2L 출시

롯데칠성음료(대표 이재혁)가 백두산 청정 원시림 보호구역에서 생산하는 화산암반수 '백두산 하늘샘' 2L페트를 12일 출시했다.

이 제품은 지난 2012년 12월 제품 출시 이후 3년 만에 추가로 선보이는 것이다. 백두산 해발 810m 에서 취수한 약알칼리성 화산암반수 본연의 속성은 그대로 유지한 채 패키지 라벨은 새롭게 디자인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라벨 디자인은 녹색을 바탕으로 백두산 천지의 맑고 깨끗한 자연이 주는 신선한 활력과 시원하고 깨끗한 물맛을 눈으로도 느낄 수 있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새로워진 백두산 하늘샘은 기존 500ml페트와 할인점 및 대형슈퍼 등에 주로 판매되는 대중적인 대용량 사이즈인 2L로 운영해 활력 있는 백두산 물을 가정에서도 시원하게 즐길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백두산 하늘샘은 백두산 기슭의 화산암층을 통과해 오랜 기간 자연 정화된 약알칼리성(pH7.7~8.3) 화산암반수다. 지하 암반대수층에서 취수해 규소·칼슘·마그네슘 등 각종 천연 미네랄 함량이 풍부하고 깨끗하면서도 깔끔한 물맛이 특징이다. 특히 노화 억제, 치매 예방 등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규소(Si)가 풍부하게(24.3mg/L) 함유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백두산 하늘샘'의 원수인 백두산 화산암반수는 러시아 코카서스, 스위스 알프스와 함께 세계3대 광천수로 평가 받고있다. /21cindiun@

"한옥스테이 매력 알려드려요"

한옥스테이 알리미 대학생 기자단 발대식

한옥스테이 알리미 대학생 기자단 발대식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는 '한옥스테이 알리미 대학생 기자단' 20명을 선발하고, 10일 오전 원주 본사 대강당에 서발대식을 개최했다.

발대식 후 기자단은 1박 2일 일정으로 안동에서 개최되는 워크숍에 참가하고 우리나라의 대표적 한옥 관광지인 안동 하회마을을 방문해 농암종택에서 종가음식과 한옥 숙박 체험을 했다.

이번 대학생 기자단 선발은 젊은 층이 한옥의 매력에 대해 좀 더 많이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25개팀 78명이지원해 서류와 PT면접을 거쳐 최종적으로 7개팀 20명이 선발된 바 있다.

최종 선발된 기자단은 한옥스테이 취재와 축제 연계 한옥 홍보부스 운영, UCC 동영상 제작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옥스테이를홍보할 계획이다.

한국관광공사 박석주 관광숙박개선팀장은 "대학생 기자단을 대상으로 한옥 관련 미션을 부여해 한옥을 체험해 보고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젊은 층이 한옥의 멋과 매력을 알고 많이 이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치선기자 chisunti@metroseoul.co.kr

상명대, 글로벌 산업시찰단 북미 방문

상명대학교(총장 구기헌) 재학생 40여명으로 구성된 '2015학년도 글로벌 산업시찰단'은 10일(한국시간) 미국에 있는 Federal Way 시청과 글로벌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를 방문했다.

글로벌 산업시찰단은 글로벌 기업방문을 통해 첨단산업에 대한 정보와 이해의 폭을 넓히고 글로벌 취업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시찰단은 15일까지 미국 시애틀과 캐나다 벤쿠버의 글로벌 기업, 대학, 관계기관 등을 방문한다.

프뢰벨, 은물+영어 교재 'Think in English' 출시

은물매직캐슬 사은품 증정

프뢰벨이 은물과 영어가 결합한 Think in English를 출시했다. 프뢰벨은 8월 21일까지 모든 예약구매고객에게 교구 은물매직캐슬을 증정한다. 2~4세를 위한 Think in English는 은물놀이로 자연스럽게 상황에 몰입해 다양한 영어표현을 배울 수 있다. 주제별 다중지능통합 활동으로 배경지식을 확장하고, 영어식 사고를 발달시켜준다.

프뢰벨의 특장점은 다중지능 교육과 표준 누리교육과정을 영어로 학습하는 것이다. 또한 스킬 중심이 아닌 자신의 생각을 영어로 표현하게 하는 발화중심의 영어교육프로그램이다.

◆제품구성: R단계 교재 16권/교구 1종/오디오CD 1장, Word cards 53장, Story alphabet 교재 24권, 교구1종, 오디오 CD 2장, 부모가이드북 1권, Thinking Pen

양천구치매지원센터, 약사회와 업무협약

이대목동병원이 수탁·운영하는 양천구치매지원센터(센터장 : 최경규 이대목동병원 신경과 교수)가 서울특별시양천구약사회(회장 : 한동주)와 함께 양천구 어르신의 치매 예방과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양천구치매지원센터와 서울특별시양천구약사회는 지난 9일 치매지원센터3층 보건교육실에서 '양천구 어르신 치매 예방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치매어르신의 치매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 적극 참여 ▲치매 관련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의뢰 및 협조▲지역사회 사회복지 자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상호 협조 ▲1,000만 서울 시민 '기억 친구' 프로젝트 동참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어르신들의 이용이 잦은 관내 약국에서 치매 관리 사업을 적극 홍보해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 프로그램 접근성 향상과 치매 조기 발견으로 치매로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수 있다. 나아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경규 치매지원센터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인적·물적 자원의 연계를 통해 치매 예방과 조기 발견에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치선기자 chisunti@

"100인분 드시면 100인분 싸드립니다"

강강술래, 주문 양만큼 무료 포장 이벤트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 경품 행사도 진행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대표 최종만)가 이달 말까지 주문한 양만큼 나갈 때 무료로 포장해 주는 이벤트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매장별로 상계점에서는 소고기류(술래·강강·왕양념갈비·한우스페셜·한우모둠구이)를 시키면 한우양념불고기를, 돼지고기류(한돈·돼지양념)를 시키면 돼지양념구이를 주문 양만큼 나갈 때 포장해 준다.

시흥점에서는 소고기류(술래·강강양념,한우갈비살)를 시키면 한우양념불고기를, 돼지고기류(한돈·돼지양념·생고기한판)를 시키면 돼지양념구이를 포장해준다.

신림점도 소고기류(술래·강강양념·왕양념·본갈비·한우스페셜·한우모둠구이)를 시키면 한우양념불고기를 포장 증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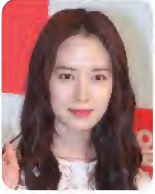
한편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 경품이벤트에 신청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전 세계 500만 명 관객을 열광시킨 넌버벌 뮤지컬 '점프' 공연티켓(1인2매)을 증정한다.

무술 고수 가족의 집에 엉뚱하고 귀여운 도둑들이 들어와서 벌어지는 해프닝을 대사없이 생생한 라이브 액션과 절묘한 코믹 연기를 통해 요절복통 웃음을 선사한다.

/정은미기자 21cindiun@

씨제스와 마침내 결별

배우 **송지효**가 씨제스 엔터테인먼트와 결별했다.

씨제스측은 지난 10일 "송지효의 매니지먼트 업무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린다"며 "송지효가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으로 큰 사랑을 받기를 응원한다. 새 소속사가 정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하늘 이어 '여교사' 합류

배우 **유인영·이원근**이 김하늘에 이어 영화 '여교사'(가제)에 캐스팅됐다.

유인영은 혜영 역으로 새로운 변신에 도전한다. 순진함과 솔직함 때문에 상대를 건드리고 상처를 주는 특별한 매력이 있는 캐릭터다. 이원근은 두 여교사 사이의 관계를 흔드는 촉매가 되는 재하 역으로 출연한다.

음주운전 차량 동승 사고

그룹 블락비 멤버 **지코**가 지난 8일 음주운전차량에 동승했다 교통사고를 당했다.

소속사 측은 "매니저가 운전하던 차로 이동하던 중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매니저의 음주 사실을 알았다"며 "지코도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7월 日 단독 콘서트 개최

가수 **윤하**가 오는 25일 아카사카 브릿츠에서 일본에서 단독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콘서트는 일본의 지상파 라디오 TBS 주최로 열리는 공연이다. 애니메이션 OST로 사랑받은 '혜성'을 포함해 히트곡을 선보인다. 올 가을 공개할 신곡도 최초로 공개할 예정이다.

악역 이미지, 밋밋한 것보다 낫죠

드라마 '후아유 – 학교 2015' 조수향

배우 조수향(25)은 KBS2 월화드라마 '후아유–학교2015'(이하 '후아유')에서 악역 연기로 시청자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제 갓 주목 받기 시작한 신인이지만 탄탄한 기본기를 갖췄다. 고등학교 때부터 연기를 시작해 동국대학교 연극영화과에서 기초를 다졌고 대학로에서 두 편의 연극을 했다. 이후 7편의 독립영화에도 출연했다. 지난해에는 영화 '들꽃'으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올해의 배우상'을 받았다.

올해 초 KBS2 단막극 '눈길'을 통해 브라운관으로 활동영역을 넓혔다. '후아유'는 그의 두 번째 드라마다. 극중 주인공인 고은별(김소현 분)을 괴롭히는 강소영 역을 맡아 실감나게 연기를 했다. 댓글부터 패러디물까지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하지만 악역을 맡은 때문인지 악성 댓글이 더 많았다.

악플에 상처… 이젠 관심이라 생각
실제 성격은 극중 강소영과 정반대
친구들과 노래방 가는게 가장 좋아
연애 에너지 연기에 쏟아내고 싶어

"작품 시작 전까지도 이렇게 반응이 많을 거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처음엔 감당이 안 됐지만 생각해보면 악역 치고 사랑을 많이 받은 편인 것 같아요. 다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연기 공부할 때 절 처음 본 사람들이 '밋밋하게 생겼다'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걸 깨고 싶었죠. 악역으로 보인다는 게 오히려 더 좋아요. 뻔하지 않으니까요."

올해의 악역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좋은 연기를 보여줬다. 조수향은 '후아유'에서 주목받을 수 있었던 건 온전히 함께 연기한 동료 배우들과의 호흡 덕분이라고 말했다.

"소현이는 마음이 약해서 제 머리채를 잡는 장면에서 괜찮다고 했는데도 미안해하더라고요. 저도 소현이를 괴롭히는 장면은 최대한 한 번에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한 번도 NG를 내지 않았죠. 두식 오빠는 고마운 분이에요. 제가 힘들어 하면 늘 다정하게 챙겨줬죠. 동료들 덕분에 제 역할에 충실할 수 있었어요."

25세의 조수향이 여고생 연기를 하면서 가장 공감할 수 없었던 것은 강소영 그 자체였다. 실제 성격과 정반대였기 때문이다.

"소영이는 좋은 집안에 공부도 잘해서 돋보이는 아이에요. 다른 아이들로부터 고립돼 외롭고요. 저와는 정반대인 것 같아요. 전 학창시절에 평범하게 친구들하고 노는 걸 좋아했던 아이였어요. 엄청 시끄럽고 흥이 많은 아이였죠. 지금도 친구들과 노래방 가는 걸 제일 좋아해요."

조수향은 드라마가 종영되고 가장 좋았던 것은 유명세가 아니라 그동안 못 만났던 사람들과 만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중 가장 만나고 싶었던 것은 친언니였다.

"언니랑 굉장히 친해요. 드라마 끝나고 같이 놀려고 했는데 언니한테 남자친구가 생겨서 만나기 힘드네요. 빼앗긴 기분이에요.(웃음) 어렸을 때부터 언니한테 의지를 많이 했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가장 지분이 많은 사람입니다."

언니의 연애에 질투하는 조수향은 정작 본인의 연애에는 관심이 없었다. "지금은 연애 생각이 없어요. 연기에 매진하고 싶으니까요. 연애에 쓰이는 에너지가 아깝습니다. 그 에너지를 온전히 연기에 쏟고 싶어요."

/하희철기자 bbuheng@metroseoul.co.kr

사진/라운드테이블(전주리)

대구 뮤지컬 축제 막 내린다

'DIMF 어워즈' 화려한 피날레… MC 유준상·박은영

대구를 뮤지컬로 가득 채운 '제9회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DIMF)'이 13일 대구오페라하우스에서 피날레 행사 'DIMF 어워즈'로 18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한다.

DIMF는 지난달 26일 개막작 '포비든 플래닛'을 시작으로 6개국 19개의 뮤지컬 작품과 백스테이지 투어, 거리공연 딤프린지 등의 다양한 부대행사를 펼치며 대구를 축제의 도시로 만들었다.

마지막 행사 'DIMF 어워즈'는 스타들의 레드카펫과 시상식, 뮤지컬 스타들이 꾸미는 축하공연 등으로 꾸며진다.

시상은 지난 1년간 대구에서 열린 뮤지컬 작품에 출연한 배우를 대상으로 한 올해의 스타상과 신인상 시상, DIMF 기간 중 공연된 작품을 대상으로 한 주연상·조연상·대상 등이 주어진다. 레드카펫 행사는 이날 오후 5시 30분 시작한다.

지난해 열린 제8회 DIMF 어워즈 레드카펫 행사.

뮤지컬 배우 유준상과 KBS 박은영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될 'DIMF 어워즈'는 최정원을 비롯해 이건명·박은태·아이비·신영숙·김소현·이태원 등 수많은 뮤지컬 스타들이 참석한다. 아이돌 출신의 뮤지컬 배우 김동준(제국의 아이들)과 신예 배우 김예원, 뮤지컬계 거목 윤복희·김진태 등도 함께 한다.

축하공연에서는 뮤지컬 '투란도트', 폐막작 '팬텀 오브 런던', 국내에 처음 소개되는 독일팀의 '스윗 채리티' 등 DIMF를 수놓았던 뮤지컬 공연들이 펼쳐진다.

'DIMF 어워즈'는 무료로, 현장에서의 혼란을 막기 위해 참석을 원하는 사람은 DIMF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김민준기자 mjk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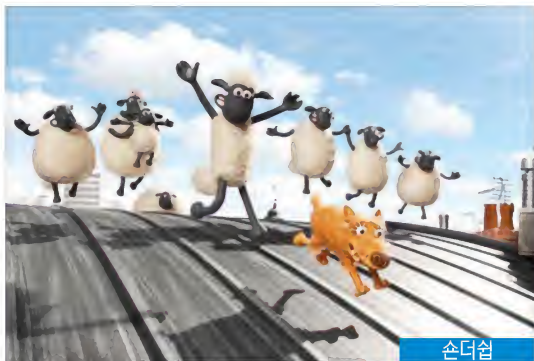
여름방학 극장가, 색다른 애니메이션 만나자

英 아드만 신작 '숀더쉽' 말이 없어도 감동 100%

韓 미디어캐슬 '고녀석2' 日 원작 판권 구매 제작

숀더쉽 / 고녀석 맛나겠다2

여름방학을 맞이해 색다른 애니메이션 2편이 개봉한다. 영국의 유명 애니메이션 제작사 아드만 스튜디오가 만든 '숀더쉽', 그리고 일본 원작으로 한국에서 제작한 애니메이션 '고녀석 맛나겠다2: 함께라서 행복해'(이하 '고녀석 맛나겠다 2')다.

오는 23일 개봉하는 '숀더쉽'은 '치킨 런' '월레스와 그로밋' 등을 만들었으며 40여 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애니메이션 명가 아드만 스튜디오의 신작이다. 2007년부터 영국 BBC에서 방송된 TV 애니메이션의 극장판으로 집을 나간 아빠를 찾기 위해 도시로 떠난 양들의 모험을 그렸다.

'숀더쉽'의 가장 큰 특징은 대사 없이 제작됐다는 점이다. 마치 무성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불러일으킨다. 실제로 제작진은 버스터 키튼의 무성영화, 그리고 자크 타티의 슬랩스틱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해 영화의 스토리텔링을 구축했다.

9개월 동안 진행된 촬영에는 20여 명의 전문 애니메이터와 100여 명에 달하는 스태프들이 참여했다. 총 33개의 세트와 40여개의 캐릭터를 제작해 아드만 스튜디오 특유의 전통을 이어갔다. 대사가 없기에 캐릭터의 감정 표현에도 많은 신경을 썼다. 리드 애니메이터 윌 베처는 "캐릭터의 감정과 느낌, 그리고 스토리라인을 전달하기 위한 모든 것이 도전이었다"고 설명했다.

오는 30일 개봉을 앞둔 '고녀석 맛나겠다2'는 2011년 개봉한 '고녀석 맛나겠다'의 속편이다. 일본 동화 작가 미야니시 타츠야의 '고녀석 맛나겠다' 시리즈 중 '널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와 '나를 닮은 당신이 좋아요'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재구성했다. 엄마, 아빠를 잃은 꼬마공룡 미르가 초식공룡, 육식공룡과 함께 떠나는 모험을 담았다.

그동안 주로 해외 애니메이션을 수입해온 한국의 미디어캐슬이 직접 제작에 나선 첫 번째 작품이다. 1편을 수입했던 미디어캐슬은 시리즈의 가능성을 발견해 원작의 판권을 구입했고 곧 바로 2편 제작에 착수했다. 기존에 일본에서 하청을 받아 애니메이션 제작에 참여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제작된 작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일본에서도 인정 받고 있는 최경석 감독이 총 연출을, 1편을 번역했던 일본영화 통번역 전문가 강민하 작가가 시나리오를 맡았다. 전작과 마찬가지로 우정이라는 테마로 아이들을 위한 따뜻한 메시지를 전한다. 영화는 지난달 6일 일본에서 먼저 개봉했다. 올 가을에는 중국에서도 개봉할 예정이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TV 하이라이트

'불같은 남자'의 3승 도전

◆ KBS2 '안녕하세요'

오후 11시 10분

2승을 차지한 '불같은 남자'가 왕좌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도전자들이 도전장을 내민다. 남편이 민망한 립싱크 동영상을 찍어서 주변 사람들한테 보내는 바람에 낯부끄럽다는 20대 주부, 10년 동안 바꾼 사업만 11개나 될 정도로 금방 가게를 바꾸는 형 때문에 고민인 30대 남자, 친구들을 집에 데려와 매일 술판을 벌일 정도로 술을 사랑하는 천생연분 아들 부부 때문에 걱정이 앞선다는 60대 시어머니가 출연해 왕좌 탈환을 노린다.

◆KBS2 '너를 기억해'

오후 10시

지안을 무시해오던 이현은 양진석 형사 살인 사건의 유일한 용의자가 되자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지안의 집을 찾는다. 그리고 서서히 마음을 열어간다.

◆JTBC '냉장고를 부탁해'

오후 9시 40분

'공연의 신' 이문세의 냉장고를 공개한다. 정창욱과 홍석천은 이문세의 체질에 맞는 요리를, 샘킴과 이연복은 시그니처 요리의 향연을 선보인다.

◆ SBS '힐링캠프'

오후 11시 15분

4주년을 축하하는 '힐링감상회'가 열린다. 네 MC는 지난 4년 동안의 추억을 보듬어 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전 안방마님이었던 한혜진은 몰래 자리를 찾는다. /정리=하희철기자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3일 (월)

지상파	KBS1	KBS2	MBC	SBS	EBS1	EBS2
18시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2TV 저녁 생생정보	10 생방송 오늘 저녁	00 생방송 투데이	00 톡! 톡! 보니 하니 1 (2881회) 05 출동! 슈퍼윙스 25 내 친구 아서 45 발명이 팡팡!	00 하늘 놀이터 (재) 25 Real Fun World1 (재) 30 헬로 코코몽(1·2) (재) 50 Real Fun World2 (재) 55 곰디와 친구들(영어더빙·한국어) (재)
19시	00 KBS 뉴스 7 30 우리말 겨루기	50 오늘부터 사랑해 (70회)	15 위대한 조강지처 (21회) 55 MBC 뉴스데스크	20 돌아온 황금복 (25회)	0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30 EBS 뉴스 5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재)	25 꼬마 철학자 휴고(영어) (재) 35 Real Fun World3 (재) 40 꼬마 철학자 휴고(한국어) (재) 50 몬스터 수학나라(영어) (재)
20시	25 가족을 지켜라 (46회)	30 반려 동물 극장 단짝 55 위기탈출 넘버원	55 딱 너 같은 딸 (41회)	00 SBS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40 세계문화유산 등재 특집 <문화유산 코리아> 50 세계 테마 기행	00 Real Fun World4 (재) 10 몬스터 수학나라(한국어) (재) 20 스쿨랜드-절대비법 30 공부의 왕도 (재)
21시	00 KBS 뉴스 9		30 리얼스토리 눈		30 한국기행 50 EBS 다큐 프라임	00 다큐 오늘 10 EBS 스타 강사 특강
22시	00 가요무대	00 너를 기억해 (7회)	00 화정 (27회)	00 상류사회 (11회)	45 달라졌어요	00 영화로 배우는 영어 <이창>
23시	00 KBS 뉴스라인 40 TV, 책을 보다	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5 MBC 다큐스페셜	15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	35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24시	30 우리 생애 마지막 여름	30 2015 광주유니버시아드 기획 스포츠 하이라이트	15 MBC 뉴스 24 35 메이저리그 다이어리 50 스포츠 특선	35 나이트라인	05 지식채널e (재) 10 EBS 인문학 특강	30 K-POP으로 배우는 다문화 한국어 (재)

케이블	JTBC	tvN	올리브TV	내셔널지오그래픽	채널CGV	스포츠
18시	30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23회) (재)		10 MAPS (3회)	30 와일드 순간포착(2)		◆ 해외야구 04:05 샌디에이고 vs 텍사스 05:10 밀워키 vs LAD 09:05 세인트루이스 vs 피츠버그
19시	55 JTBC 뉴스룸	40 다녀오겠습니다 (4회)	20 맛있는 19 (9회)	00 나는 자연인이다 (8회)	30 노잉	
20시	50 JTBC 뉴스룸	40 명단공개 (71회)	00 오늘 뭐 먹지? (79·78회)	00 어메이징 와일드 : 기이한 지상동물		
21시	40 냉장고를 부탁해 (35회)	40 집밥 백선생 (8회) (재)	15 한식대첩 3 (8회)	00 어메이징 와일드 : 기이한 수중동물		
22시			30 2015 테이스티로드 (4회)	00 사이언스 오브 데인저 (3·4회)	00 도희야	
23시	00 비정상회담 (54회)	00 신분을 숨겨라 (9회)	30 MAPS (3회)	00 <사상 최악의 참사> 비스마르크 호의 침몰		
24시	30 화이트 스완 (7회)	20 코미디 빅리그 (128회) (재)	40 샘과 레이먼의 올리브 쿠킹타임 듀엣 (3회)	00 어둠의 제왕, 사자	30 머니볼	

한국 男 축구, 24년 만에 금메달 도전

오늘 오후 7시 결승전, 이탈리아와 격돌
1997년 설욕전… 정원진·이정빈 등 기대

광주U대회

한국 남자축구가 24년 만에 유니버시아드 대회 금메달에 도전한다. 상대는 숙적 이탈리아다.

김재소 감독이 이끄는 유니버시아나드 축구 대표팀은 13일 오후 7시 전남 나주 공설운동장에서 열리는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축구 결승전에서 이탈리아와 맞붙는다.

유니버시아드 대표팀이 결승전에 오른 것은 1997년 이탈리사 시칠리아 대회 이후 18년 만이다. 또한 금메달을 목에 걸면 1991년 영국 셰필드 대회 이후 24년 만에 우승을 차지하게 된다.

한국은 1991년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뒤 1993년 미국 버펄로, 1995년 일본 후쿠오카, 1997년 이탈리아 시칠리아 대회에서도 결승에 올랐다. 그러나 모두 준우승을 차지하는데 그쳤다.

특히 이탈리아와는 1997년 대회에서 연장 후반 2분 통한의 골든골로 0-1로 분패했다. 이번 결승전은 당시 대회의 설욕전으로도 관심이 모아진다.

A대표팀 세계 랭킹에서는 이탈리아가 17위로 52위인 한국보다 앞선다. 그러나 대학생이 주축이 된 유니버시아드 대표팀인 만큼 금메달에 대한 기대는 낙관적이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한국이 이탈리아보다 우세한 경기를 보이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조별리그에서 같은 조에 속했던 한국은 두 번째 경기에서 정원진(21·영남제)의 결승골로 이탈리아를 1-0으로 꺾은 바 있다.

정원진은 브라질과의 준결승에서도 1골 1도움을 했다. 이번 대회 5경기에서 5골을 넣는 등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 이탈리아와의 결승에서도 선봉에 나선다.

여기에 우루과이와의 준준결승에서 결승골을 넣는 등 이번 대회 3골을 넣은 이정빈(20·인천대)과 김건희(20·고려대), 문준호(22·용인대)도 골문을 노린다.

반면 이탈리아는 조별리그에서 대만에 골득실차로 앞서 간신히 조 2위로 통과했다. 준결승에서도 일본을 승부차기 끝에 힘겹게 꺾었다.

한국과의 결승전에서는 공격수 토마소 비아스치와 조별리그에서 두 골을 넣은 레오나르도 모로시니, 비아지오 메카리엘로를 앞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한국 남자축구가 13일 24년 만에 유니버시아드 금메달에 도전한다. 상대는 이탈리아다. 사진은 지난 9일 정읍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우루과이와의 준준결승전에서 헤딩슛을 하고 있는 이정빈. /연합뉴스

오늘의 광주 하계U대회 13일

UNILEBSIADE GWANGJU 2015

▲ 체조 = 리듬체조 종목별 결승(14시·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 체육관)
▲ 축구 = 남자 결승전 한국-이탈리아(19시·나주공설운동장)
▲ 핸드볼 = 여자 결승전(18시·나주실내체육관)
▲ 탁구 = 남녀단식 준결승 및 결승(10시·장성홍길동체육관)
▲ 태권도 = 남녀 겨루기 단체전 예선 및 결승(9시·조선대체육관)
▲ 수구 = 남자 9~12위전 한국-터키(14시·염주실내수영장)

강정호 맹활약, 피츠버그 역전승

2경기 연속 멀티히트
추신수는 이틀째 침묵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강정호. /AP 연합뉴스

미국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강정호(28)가 2경기 연속 멀티히트(한 경기 2안타 이상)로 팀의 역전승을 이끌었다.

강정호는 12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PNC파크에서 열린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의 홈 경기에서 5번 타자·3루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 1타점 2득점, 몸에 맞는 공 1개를 기록했다.

전날 4타수 2안타 1타점을 기록했던 강정호는 이날도 안타와 타점을 만들어내며 멀티히트를 작성했다.

이날 경기에서 피츠버그는 강정호가 두 차례 동점 득점을 올린 덕분에 연장 14회까지 접전 속에서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다.

한편 텍사스 레인저스의 추신수(33)는 이틀 연속 침묵을 지켰다.

추신수는 12일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의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열린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의 홈 경기에서 2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무안타로 물러났다.

볼넷으로 한 차례 출루했으며 삼진도 두 번이나 당했다. 시즌 타율은 0.227에서 0.224로 더 떨어졌다. 텍사스는 이날 5-6으로 역전패를 당했다. /장병호기자

힝기스, 17년 만에 윔블던 재패

스위스의 마르티나 힝기스(35·사진 오른쪽)가 17년 만에 윔블던 우승을 차지했다.

사니아 미르자(인도)와 한 조를 이뤄 톱시드로 여자 복식에 출전한 힝기스는 11일(현지시간) 영국 윔블던에서 열린 2번 시드의 엘레나 베스니나-에카테리나 마카로바(이상 러시아)를 2-1(5-7 7-6<4> 7-5)로 이겼다.

힝기스는 윔블던에서 1997년 단식, 1996년과 1998년 여자 복식 우승을 차지했다. 이날 승리로 1998년 이후 17년 만에 윔블던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노익장을 과시했다.

힝기스-미르자는 결승전 첫 세트를 5-7로 내줬다. 그러나 2세트를 타이브레이크 접전 끝에 따내며 승부의 균형을 맞췄다.

이어진 3세트에서는 2-5까지 뒤졌지만 결국 5-5까지 따라붙었다. 동점 상황에서 날이 어두워 경기장 지붕을 닫기 위해 잠시 경기가 중단됐다 재개됐고 힝기스-미르자가 7-5로 승리했다. /장병호기자

금빛 향한 아름다운 몸짓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 출전 중인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가 12일 오후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체육관에서 열린 여자 리듬체조 개인종합 결승 및 예선 경기에서 음악에 맞춰 리본 연기를 펼치고 있다. 이날 경기에서 손연재는 개인종합 합계 72.550점을 받아 유니버시아드대회 사상 최초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연합뉴스

Congressman Park Ji Won, Under Probation… Two Years Out of Office

<박지원 의원, 2심서 집행유예 2년 의원직 상실위기>

Congressman Park Ji Won was sentenced 1 year in prison and 1 year under probation for receiving bribery from 2 savings bank. According to the policy, if a congressman is sentenced a certain amount of time, his position is suspended. Park has received total of 80 million won from Solomon Savings Bank Chairman, former Bo Hae Saving Bank Representative Oh Moon Cheol and former Bo Hae Yang Jo Chairman Lim Gun Woo from 2008 ~ 2011. But he was claimed innocent. But the court claimed Park guilty for receiving 30 million won from Oh Moon Cheol former chairman and requesting cover ups on June 2010.

/파고다어학원 영어회화 Chris Kim(김윤관) 강사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항소심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저축은행 2곳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원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저축은행 두 곳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지원(73)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상 현직 의원이 금고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앞서 박 의원은 2008~2011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등으로부터 불법자금 총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2년 9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은 세 차례의 금품수수 혐의 중 박 의원이 2010년 6월 목포 사무실에서 오문철 전 대표로부터 검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1	
	9				1	6		7
			4				9	
							8	
1	3							
2	8	6	3			9		
3	7	2	8					
		9	1	6			7	
		1	2	3				

				8			2	
			1			8		4
	8	9	5				7	
3	4							
		6	2					3
				3		2	1	
	2	4		1		3		
	1	8			2	7		
6					5			

스도쿠 정답

6	2	5	7	9	3	4	1	8
4	9	8	5	2	1	6	3	7
7	1	3	4	8	6	5	9	2
9	5	7	6	1	2	3	8	4
1	3	4	9	5	8	7	2	6
2	8	6	3	7	4	9	5	1
3	7	2	8	4	9	1	6	5
8	4	9	1	6	5	2	7	3
5	6	1	2	3	7	8	4	9

7	3	1	4	8	6	5	2	9
2	6	5	1	9	7	8	3	4
4	8	9	5	2	3	6	7	1
3	4	2	6	5	1	9	8	7
1	9	6	2	7	8	4	5	3
8	5	7	9	3	4	2	1	6
5	2	4	7	1	6	3	9	8
9	1	8	3	6	2	7	4	5
6	7	3	8	4	5	1	9	2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가게 이전을 해야하는데… 언제쯤 안정될까요
가게 접고 직장에 다녀야… 내년부터 서서히 안정

dmswn 여자 77년 1월 14일 유시

Q 선생님 안녕하세요. 메트로 사주 속으로 애독자입니다. 저는 지금 작은 가게를 하고 있는 40세 주부입니다. 처음부터 빚으로 시작해서 5년 정도 되가는데 그럭저럭 유지해나가고 있습니다. 요새 재개발 문제로 가게 이전도 해야 되고 장사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걱정이 많습니다. 결혼 전 사주를 보면 여자사주로 세서 경제활동을 계속 해나가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제 사주가 센 편이라 우여곡절이 많은 건지 언제쯤 사업이 안정 궤도에 올라 맘 편히 지낼지 가게 이동수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선생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음력으로 용띠 생인데 동양에서 용은 신성한 동물의 상징으로 동물의 제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임금이나 천자 비범하고 훌륭한 사람 명마 등을 용으로 표현하곤 합니다. 가뭄이 심할 때는 용을 대상으로 기우제를 지내는데 용은 물(水)을 불러오기 때문이지요. 즉 용은 복을 끌어들이는 기운이 강한데 물은 수(水)로서 귀하에게 경제활동이며 돈의 생성지입니다. 수(水)인 재물의 원류가 약하여 큰 반전 없이 그날이 그날이니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가슴은 아프지만 정리를 하십시오. 현재 속해있는 곳에서의 비현실적인 계산은 나만의 주장일 뿐이며 미련은 경제활동을 할 때 미래를 저어하는 기신이며 나이만 먹게 되는 보이지 않는 어두운 기운입니다. 2017년까지는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직장을 선택해서 다니십시오. 그런 후 차후 다시 상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주8자의 원국이 좋거나 운이 좋으면 주변 환경이나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잘 풀려 나갈 수 있으나 그렇지 못 할 때는 지피지기(知彼知己:나를 알고 남을 안다)하여야 하는데 dmswn님은 석류(石榴)나무와 같은 성정으로 일견 원만해 보여도 그 마음은 바르고 고지식합니다. 소란스런 것을 싫어하고 고요하고 평온한 것을 선택하는 가운데 현실은 가시로 변하는 짧은 가지와 같아 신경이 매우 날카롭고 번민과 상념에 잠기는데 한번 믿으면 모든 것을 다 주게 되고 그러다보니 한 곳에서 동요를 다소 두려워하며 이익이 적어 쉽게 풀리지 않는 편입니다. 현재는 얼어붙은 땅위에 추적추적 겨울비가 내리고 있으니 어려운 처지입니다. 2016년 5월부터 형편이 나아지기 시작하여 서서히 안정궤도에 오르게 되며 2017년 지나 문서 운이 들어와 다시 이동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7월 13일 (음 4월 15일) 힐링운세(www.healingunse.com) 060-800-8877

48년생 남과 다투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60년생 재물을 다투는 일이 따를 수 있습니다. 72년생 이성운이 좀 불리합니다. 84년생 용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 49년생 자신감이 생기게 될것입니다. 61년생 능률이 상당히 올라갈 것 같습니다. 73년생 정신적으로는 배우고 연구하는 문제가 우선 과제 입니다. 85년생 생각도 못했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50년생 지금까지 쌓아온 것이 위험합니다. 62년생 자중하지 않으면 화를 입을지도 모릅니다. 74년생 쓸데없는 것에 눈을 돌리기가 쉽습니다. 86년생 음식을 조심하도록 하세요.

토끼: 51년생 지출이 생길 수 있습니다. 63년생 선물을 받는 기쁨이 있습니다. 75년생 건강을 위한 정보를 접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87년생 시험에 합격하게 됩니다.

52년생 귀하가 최강자 입니다. 64년생 너무 자만해서는 안됩니다. 76년생 일이 잘 풀리기 마련입니다. 88년생 오래 전부터 기다리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53년생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마세요. 65년생 세상 어느 구석에도 갈 곳은 없습니다. 77년생 건강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시기입니다. 89년생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54년생 차근차근 이루어질 것입니다. 66년생 귀인의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78년생 친구들과 재미있는 영화를 보세요. 90년생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자식들의 도리입니다.

55년생 운동 부족으로 건강이 많이 악화 되었습니다. 67년생 여자들의 꼬임에 넘어가지 마세요. 79년생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90년생 지금은 더욱 열심히 할 때입니다.

원숭이: 56년생 도움을 받아 일을 추진하도록 하세요. 68년생 추억속에 친구가 있습니다. 80년생 아주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92년생 모두들 당신이 만들어내는 결과를 주목할것입니다

닭: 57년생 경거망동을 삼가고 신중히 행동하세요. 69년생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크게 향상됩니다. 81년생 사소한 다른 일이 생깁니다. 93년생 하는일이 잘 풀립니다.

58년생 저녁에 잡는 약속은 신중하게 결정하는게 좋겠습니다. 70년생 애정운이 좋습니다. 82년생 시비를 가까이 하지 마세요. 94년생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손해를 당할 것입니다

59년생 모든 것이 처음으로 날 것입니다. 71년생 밝은 이름을 얻겠고 재물을 얻을 것 입니다. 83년생 꾀하던 일을 이룰 수 있고 바라던 것을 얻게 될것입니다. 95년생 즐거운 하루입니다.

시내면세점 '전쟁'이 남긴 것

염지은의 유통바로보기

뜨거웠던 면세점 전쟁이 끝났다.

관세청은 지난 10일 대기업이 참여한 일반경쟁 입찰에 HDC신라(호텔신라·현대산업개발)와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를, 중소·중견제한경쟁 입찰에 SM면세점(하나투어)과 제주관광공사 등 4곳을 시내면세점 특허사업자로 추가 지정했다.

이번 면세점 입찰에는 재벌 기업 8곳과 중소·중견기업 17곳(서울 14곳·제주 3곳)이 뛰어들 정도로 과열 경쟁을 벌였다. 특히 재벌 기업간 경쟁이 과열되다 보니 언론사와 증권사를 동원한 허황된 여론전은 물론 업체간 서로를 헐뜯는 상호 비방전이 가열되는 등 그야말로 복마전(伏魔殿)이었다.

'조세 수입을 포기해야하는 공익 사업'을 재벌 기업들의 혈투장으로 만든 것은 재벌 면세점에 집중된 잘못된 면세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낙찰된 시내면세점은 외국인 관광객과 내국인이 함께 이용하는 사전면세점으로 세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판매가 이뤄진다.

사전면세점과 달리 가맹점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구입한 상품에 대해 면세를 받을 수 있는 텍스리펀드 매장, 사후면세점이 있다.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서 구입한 물건을 수출로 간주, 공항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도록 하는 매장으로 전국에 약 7600여 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롯데호텔·호텔신라 등 몇몇 재벌 면세점들이 8조 3000억원의 판매액을 기록할 동안 사후면세점의 판매액은 1조2000억원에 그쳤다. 사후면세점을 대신해 세금을 환급해주는 택스리펀드 서비스 시장도 지난해 300억원이 채 되지 않는다.

재벌 면세점이 아닌 남대문이나 동대문 시장과 같은 영세 매장도 사후면세점으로 활성화된다면 외국인의 더욱 많은 국내 소비를 기대할 수 있다.

중국인 관광객(요우커)이 많은 소비를 하는 유럽시장은 사후면세점이 가장 활성화된 곳이다. 유커들이 많이 찾지만 안타깝게도 이번에 면세점 입찰에서 제외된 동대문 시장은 사후면세점 활성화를 적극 고려해볼 일이다.

지난해 기준 서울시내 면세점 시장점유율은 롯데 60.5%. 호텔신라 6.5%로 상위 2개사가 87%를 점유했다. 국내 전체적으로도 롯데 50.7%, 호텔신라 30.7%로 두 기업이 81.4%의 점유율로 독식하고 있는 상태다.

사후면세점과 시장이 활성화된다면 면세점의 재벌 독과점 문제도 차츰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면세점 입찰 선정과정에 대해서도 독과점 논란에 따른 공정성 시비가 남았다. 11월로 예정된 서울·부산 시내면세점 4곳의 특허 만료에 따른 사업자 신규 선정에도 재벌 면세점에 특허를 계속 몰아줘야 하는 건지 고민해 볼 일이다.

아울러 이번에 입찰에 성공한 기업들의 면세점 운영에 대한 상생 약속은 지금처럼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구체화돼 반드시 지켜져야 겠다.

HDC신라는 용산 전자상가를 일본 도쿄 '아키하바라'처럼 명소로 만들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들과 상생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주변 노량진 수산시장과, 하나투어는 종로구·인사동 등 지역상권과의 상생을 약속했다.

신세계의 남대문시장과의 상생 약속, 한국은행 앞 트레비 분수 조성 등 면세점 입찰을 계기로 발표됐던 탈락한 기업들이 내건 약속도 실현될 지 지켜볼 일이다.

社說

소액주주 구애작전

삼성물산에 때아닌 비상이 걸렸다. 오는 17일 제일모직과의 합병여부를 결정할 주주총회를 앞두고 비상상황실이 설치된 것이다. 일부 언론의 표현에 따르면 '워룸'이다. 군대도 아닌 민간기업에 '워룸'이 설치된 것이 놀라울 뿐이다. 뿐만 아니라 삼성물산의 고위 임원에서 평사원까지 가릴 것 없이 소액 주주들의 찬성 위임장을 받아내기 위해 주말도 없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합병 주총이 채 1주일도 남지 않았는데, 몹시 다급한 모양이다. 주총 판세가 여의치 않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주 11.21%의 지분을 가진 1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합병안에 찬성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일부 언론은 보도했다. 사실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삼성물산은 이제 마음 놓아야 정상이겠지만, 그래도 안심할 상황이 아닌 듯하다. 무엇보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등을 돌린 가운데 소액주주들의 움직임도 만만치 않다. 합병반대 카페까지 만들어졌다. 삼성이 로비능력을 모두 동원하면 일부 기관투자가는 우군으로 끌어들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얼굴 없는 소액주주를 끌어들이는 것은 몇 배 더 힘들다. 삼성이 지금까지 대체로 소액주주에게 냉담했기 때문이다. 삼성물산의 올해 배당은 주당 500원으로, 시가배당률이 0.8%에 불과했다. 그렇게 인색하던 삼성이 지금은 단 1명의 소액주주라도 끌어들이기 위해 '구애작전'을 펴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올 들어 삼성물산의 국내외 수주상황도 여의치 않다. 그런데도 수주확대를 위해 뛰어야 할 임직원들이 '본업'과는 상관없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고 있다. 설령 그렇게 합병을 관철시킨다고 할 때, 그 후에도 과연 소액주주 목소리에 귀를 귀울일까? 삼성은 이런 의문에 우선 답해야 할 것이다.

종합심사낙찰제의 보완이 시급한 이유

기자 수첩
김 형 석
<경제부 기자>

최근 한 소형 건설사 A 대표로부터 제보를 받았다.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국내 굴지의 대형 건설사가 적자분을 떠넘겼다는 것이다.

반면 대형건설사도 할 말은 있었다. 애초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보다 추가 공사비가 더 들어간 것.

대형건설사는 계약서에 없는 추가비용 15억원을 더 투입하고도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이 공사는 정부가 지난 지난 2009년 발주한 군부대 이전 공사의 일부 사업지다. 전체공사 규모는 4000억원으로, 당해연도 정부의 최대 발주 공사였다.

하지만 취재결과 문제의 핵심은 대형건설사도 소형건설사도 아니었다. 정부가 최저가낙찰제를 입찰방식으로 사용한 것이 파장을 일으킨 것. 최저낙찰제는 말 그대로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 순으로 입찰금액적정성 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다.

이 경우 전체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선 경쟁사보다 낮은 금액을 써내야 한다. 여기에 국내 건설업의 특성상 하도급 계약에서도 최저가낙찰제가 이용될 수밖에 없는 것. 이 제도 하에서 건설사들은 결국 출혈경쟁을 피하기 위해 담합을 하거나 저렴한 공사자재를 택할 수밖에 없다. 이는 부실공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최근에는 정부도 대안을 내놓기 시작했다. 지난해부터 종합심사낙찰제도(이하 종심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한 것. 종심제의 핵심은 입찰금액 외에도 공사수행능력·가격·사회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낙찰 금액 외에도 다양한 부분을 심사해 저가출혈경쟁을 막아보자는 취지다.

하지만 시범사업에서 최저낙찰제보다 낮은 낙찰률이 나오거나 대형건설사에게 유리한 심사방법 등 문제점이 속속 나오고 있다.

건설업계에서 낙찰제도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는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가 나서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상생의 방안을 마련해야하는 이유다. 단 몇푼 저가낙찰로 아낀 국비가 수십배 혹은 수백배 부메랑이 돼 국민에게 되돌아올 수 있다.

종심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원래의 취지를 살려 꾸준한 보완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이것이 백두대간 개발 등으로 5조원의 투자활성화를 기대하는 것보다 건설업계에서는 더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다.

결합혁신

김재헌 변호사의 BizLaw

'기계와의 경쟁'(Race Against The Machine)의 공동저자인 에릭 브린욜프슨(Erik Brynjolfsson)은 미국 MIT 슬론경영대학원교수이다. 그는 18세기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기계가 사람의 팔과 다리를 대체하게 되었는데 현대사회에서는 기계가 사람의 머리를 대체하게 되었다고 지적한다.

산업혁명 때에는 기계 때문에 블루칼라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지금은 컴퓨터와 같은 기계 때문에 화이트칼라들이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는 기술의 발달로 기계가 사람이 하던 일들을 거의 다 할 수 있게 되었으니 기계와 경쟁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기계와 협력하라고 제안한다.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기계와 협력하는 것일까? 사람들은 애플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기업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미 존재하는 디지털 기술을 결합하고 아이디어를 연결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내는 것이 기계와 협력하는 방법이라고 말을 한다. 여기서 나는 '결합'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본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제품이나 기술을 결합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내는 것을 그 결합적 특성을 강조하여 결합혁신(combinatorial innovation)이라고 부른다. 이런 결합혁신은 오늘날 새로 생긴 것이 아니다.

증기기관이나 내연기관도 각종 부품과 기술의 결합이다. 오늘날은 디지털기술 덕택에 전세계에서 누구나 손쉽게 기존의 기술을 결합해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혁신의 결합적 특성이 매우 강력해졌다.

인터넷과 디지털기술로 인해서 급속도로 사업의 환경이 바뀌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생존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은 '결합혁신'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결합혁신은 기술이나 제품개발영역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CEO가 기업을 자신의 경영능력으로만 회사를 이끌어 가려고 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의 재능과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낸다면 이것도 결합혁신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인 사

■ 한국지역난방공사

◇승진 △남부사업본부장 박영현 △기획처장 이경실 △북부사업본부 중앙연구원장 서봉경 △화성동부지사장 양광식 ◇전보 △부사장 이기만 △기술본부장 박영현 △중부사업본부장 신상윤 △남부사업본부장 이훈

■ 코트라

◇상임이사 승진·보임 △중국지역본부장 겸 베이징무역관장 정광영 ◇상임이사 보임 △중소기업지원본부장 윤효춘 ◇해외파견 △광저우무역관장 오재호 △로스앤젤레스 무역관장 권오석 △중동지역본부장 겸 두바이무역관장 권용석

■ 기술보증기금

△전무이사 강석진 △상임이사 황대현

■ 축산물품질평가원

◇전보 △기획경영본부장 박종운 △충북지원장 최승덕 △기획경영본부 전략기획팀장 김형원 △충북지원 평가팀장 남건 △충북지원 직무교육센터장 이호철

■ 국토연구원

△부원장 김종원

■ 우리카드

△홍보실장 이응준